

신앙적 성숙을 위한 영성 순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장경석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2년 5월

Copyright © 2022 Chang, Kyoung Seo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Spiritual Pilgrimage for Faith Maturation

Chang, Kyoung Seog

Mokyang Methodist Church, Yongin-Suji, Kyounggi, Korea

‘Departure’ from the Eden was the outset of mankind. This departure brought in the new transition and hope for the future. Since, people have been continuously travelling place to place with various objectives and reasons. Some especially dive into pilgrimage in order to ease their inner complications or to satisfy their philosophical and religious desires. While studying the spiritual and educational effect of this pilgrimage, researcher also found out the conflict and apprehension what seminary students usually encounter, which is the uncertainty of the presence of God. It is the matter of religious belief, and at the same time, of academic strife. It is also of the uncertainty of the call from God. Part of it is due to the fact that church and pastors have become a dishonor in Korean society.

Therefore, it is importance to experience this Spiritual Pilgrimage for seminary students; professors and senior pastors being their mentors. It aims to find and revitalize oneself by encountering God through Mother Nature, spiritual activities, and various

factors such as society, culture, history and religion. Triune God's ministry of Creation and Salvation have been fully unfolded with the incarnation of the God the Son, Jesus Christ. Christ himself is a sign of salvation and he points out love and grace by walking through pilgrim life of the cross. Finding out this mark of creation and salvation, participants of this Spiritual Pilgrimage will finally start to make a fellowship with God and to taste the beauty of the created world.

Researchers hope that not only seminary students or pastors but all Christians to experience Spiritual Pilgrimage. For that, Seminaries and local churches should be the pivot and provide programs for this spiritual, devotional, and theological journey. Researcher also hope that this pilgrimage to be extended to God's evangelical and missional movement. Thereby building up more servants of Lord to spread out the Kingdom of God.

국문 초록

신앙적 성숙을 위한 영성 순례 연구

장경석

목양감리교회, 경기도 용인 수지, 한국

인류는 에덴으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었고 그 떠남이 새로움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은 지속적으로 여행을 하고 살았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여행을 하고 내적 갈등과 고민을 치유하기 위해 철학적, 종교적 이유로 순례여행의 길을 나선다. 이러한 여행이 가져다주는 영성적, 교육적 효과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신앙적 믿음의 문제이며 학문적 갈등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의식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한국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목회자의 위상이 추락되고 한국교회가 사역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수님과 선배 목사님들이 멘토가 되어 영성적 순례여행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대자연과 인간들의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을 접하고 영성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활동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창조의 기적과 구원의 표적으로 나타나고 순례자적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드러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과 구원의 활동을 영성적 순례여행을 통해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창조 세계와 호흡하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영성적 순례여행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에서부터 기독교 청년, 목회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라면 모두가 경험하도록 신학대학교, 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일시적인 관광을 떠나 영성적, 신앙적, 신학적 여행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순례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적, 선교적 운동으로 확장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세워 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연구 의의와 필요성	2
연구 방법	4
II. 순례의 의미	6
영성 여행의 목적	6
여행하시는 하나님 -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8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 사역	11
여행하는 인간	17
인생의 순례의 여정과 영성적 여행	20
III. 순례 신학	34
영성적 여행의 순례의 길	34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삶 따르며 나아가기	49
순례의 길에서 이차적 의미 발견	57
성지순례지에서 찾은 영성적 변화	60
순례의 삶에서 선교의 삶으로	64
성경 속 여행의 역사.....	72
IV. 순례와 영성.....	88
기독교 영성.....	88

영성의 역사적 흐름.....	96
영성의 정의.....	99
영성의 단초.....	103
하나님 체험과 믿음.....	105
영성훈련(말씀, 기도, 삶).....	108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훈련과 세 번의 시험	112
순례여행에서 예배와 묵상의 시간	117
V. 순례사례연구	124
아펜젤러 순례여행	124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순례여행	130
종교 개혁 순례여행	144
메콩강 순례여행	153
VI. 결론	157
요약 및 평가	157
결론 및 제언	162
VII. 부록	168
참고문헌	175

표 목차

<표1> 아펜젤러 순례여행 (미 동부 탐방 8박 11일)	126
<표2>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순례여행 (15일)	131
<표3> 종교 개혁 순례여행 (서유럽 5개국 12일)	145
<표4> 메콩강 순례여행 (라오스, 태국 19박 20일)	153

감사의 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인생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3년의 드루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치기 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드루 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 동안 교수님들을 함께 한 시간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지도해 주신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님과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박사 과정의 시작에서부터 부족한 논문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도하여 수고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기도와 삶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 언제나 저의 앞길에 대해 걱정해주시고 기도로 시간을 보내신 할머니, 박사과정까지 마무리하기를 바라시며 저에게 언제나 기둥이셨던 아버지께서 논문을 마무리하는 모습에 기뻐하실 것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 길을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선교의 길로 가는 저에게는 ‘떠남’ 과 ‘기대’ 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힘들고 지쳐 가는 길을 방황할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 주위에 목사님, 교수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할 때에 용기를 주며 축복해 준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 준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쁨을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2022년 5월 충주에서

장경석

I. 서론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대한민국에서 자유여행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화유출과 공산권국가 주민 특히,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유학이나 해외취업, 출장 등 합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조차 불가능하여 여권 발급 자체도 특권으로 느껴졌다. 사실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 부유층이나 고위직, 언론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었다. 90년대 이후 여행의 유형도 변화를 맞이한다. 여행사들의 패키지여행, 신혼여행 등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따른 관광 위주의 여행을 주로 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으로 여행지를 검색해 배낭을 메고 떠나는 개인여행의 시대에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도 동남아, 유럽, 미주, 남태평양, 남미,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여행을 자유롭게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다양한 문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하는 우리는

단순히 추억만을 만들고 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힐링을 하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지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기도 한다. 또 사업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 동안이든 또 혼자이든 여럿이든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

삶에 대한 피로나 의욕의 상실로 현실을 탈피해보려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여행에서 우리는 삶의 힐링을 위해 철학적, 종교적 관점을 통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여행이 필요한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영성 순례여행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며 신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미래의 대한 삶을 계획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연구 의의와 필요성

필자는 1997년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여행을 좋아해서 어렵고 힘든 오지여행을 많이 했었다. 인간문명의 손이 많이 닿지 않아 순수하고 때 타지 않은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거리감 없이 쉽게 친하게 되고 서로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여행객들과 서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 사실 현지인들의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을 체험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나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되찾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성찰과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잘못된 신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게 된다. 또한 오지여행 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도시를 여행을 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본능적 종교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신앙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참여하시고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선구자들의 삶을 통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영성 순례여행을 주제를 삼아 적절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¹

¹ 영성 순례여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감리교신학대학교 김영래 교수와 함께 기독교 교육적으로 순례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그래서 먼저 한국 감리교의 첫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따라가는 순례여행을 신학생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여정은 아펜젤러가 자라고 성장한 그의 고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사우더튼에 있는 임마누엘 라이다 교회와 그의 생가 등을 거쳐 그가 졸업한 드류대학을 방문하고 그가 조선의 첫 선교사로 출발하던 그 길을 따라가며 선교적 열정과 조선을 사랑했던 그의 삶을 되새기는 여정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미국 문화와 역사를 찾아 박물관과 학교를 방문하고 그들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미국 사회를 경험하는 여행 일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신학생들이 가지는 하나님 소명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체성 혼란의 회복을 위하여 인도차이나 메콩강 지역인 태국과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종교와 삶을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교수와 신학적, 선교적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여행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2019년 COVID가 발생하고 모든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미국 동부 아펜젤러 순례여행과 메콩강 순례여행은 기약 없이 COVID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장기간 미루어졌다. 이러한 순례여행을 통한 기독교교육의 필요성과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영성적 순례여행이 다시 재기되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교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길 고대하고 갈망한다.

C. 연구 방법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 형상들을 발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영성교육의 방법의 순례여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순례여행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의 성화된 삶을 추구하는 영성적 교육을 제안했다. 더불어 순례여행의 성서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정을 연구해보며 그 속에서 기독교적 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여 이 땅 오셔서 사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영성적 순례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삶이 왕성한 순례자의 길이였고 창조적 기적과 표적을 통해 창조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계시적 삶으로 사셨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 계시적 삶이 창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흔적과 구원의 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인간들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삶 속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순례의 여정 속에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피조물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과 전 우주적 사랑과 통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총에 상응하는 삶으로 변환되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고 기독교 교육의 영성적 순례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기독교 교육의 영성 순례에 있어 영성의 의미와 기독교 영성의 훈련 방법(말씀, 기도, 삶)을 탐구해보고 순례여행 여정 안에서의 영성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체하는 시간을 제시했다.

II. 순례의 의미

A. 영성 여행의 목적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 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 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²

우리는 여행을 통해 자연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마음으로 여행을 해야 할까? 첫째,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하신다. 여행을 통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² 나집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 *기독교 사상* 3 (2014) 1.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³

둘째, 여행을 하면서 인간 역사의 문화 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세상의 화려한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훈련시키고 순종하게 하심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지금도 살아 계셔 세상을 경영하고 있음을 믿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꺾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⁴

셋째, 여행 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 있음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³ 창세기 1:25

⁴ 이사야 14:24-28

함께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⁵

여행의 여정 중에 사람들과 만남과 이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연창조의 신비 안에 우리를 초대함으로 그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여행의 여정 안에서 우리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 미래의 대한 삶의 계획이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여행이 된다.

B. 여행하시는 하나님 -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여행자로 와서 인간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셨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다. 결국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 가셨지만 인간 예수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33년의 인생을 구속사적 삶으로 시간적, 공간적, 초월적인 여행자의 삶을 살았으며

⁵ 시편 139:1-10

한 장소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를 옮겨가며 복음 사역을 하였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머무름이 아닌 떠남 이였고 안주한 삶이 아닌 개척자의 삶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례자의 삶의 전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넓은 길로 말을 타며 다니지도 않았으며 화려한 숙소에 거하지도 않았다. 구속사역 이전에는 광야에서 계셨고 사역 중에는 시골 길을 걸으면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셨다. 예수의 여정에 대하여 차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예수의 여정에 가장 근접한 예의 범주는 자기초월과 승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행과 순례의 여행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 진행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여행은 종교적 포교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람 낚는 여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범주는 예수의 여행을 제대로 설명하기 충분히 정밀하지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예수는 특정 종교의 조직과 활성화를 위해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낚고자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자의식으로 충만했다.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⁷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걸으며 길 위의 사상을 지향하였고 이후 수도자들도 궁극적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자유’를 목표로 구도자로서 여행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여행은 어떤 특정한 거처를 두지 않고 일상적으로 ‘떠남’의 반복이었으며 최종적 목표를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적

⁶ 차정식, "예수의 여행과 교통 공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2010), 35.

⁷ 마태복음 8:20, 누가복음 9:58

순례 여정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제자와 함께 여정을 같이 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꾸지람, 칭찬, 위로가 있었으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⁸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⁹

이처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여행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실체적 형상,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차정식은 예수의 여행을 묘사하면서 성서적 의미를 발견했다.

예수는 왕성한 도보 여행자였다. 그의 움직임은 베들레헴에서 시나이 광야를 거쳐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역출애굽의 경로를 보여준다. 물론 다시 출애굽의 동선을 묘사하여 귀환했으니 그의 이러한 동선이 시사하는 신학적 암시인즉,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체험을 그 또한 교통 공간의 예비적 조건으로 포용했다는 것이다.¹⁰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여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목수의 아들로서 생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야에서 영적 시험을 거쳐 고향을 떠나 공생애 3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는데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⁸ 마가복음 6:7

⁹ 마태복음 10:5

¹⁰ 차정식, "예수의 여행과 교통 공간," 45.

호수 북쪽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서 귀신을 쫓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갈 때 고쳐 주셨으며, 가르치셨고, 한적한 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듯 차정식이 설명하는 것처럼

육로와 뱃길 여행을 통하여 멀리 나가는데 갈릴리 바다 인근 도시들로부터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이방 도시이자 교역의 요충지였던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이방 신전과 함께 제국의 권력이 휘황하게 전시되어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에 미친다. 그런가 하면 북서쪽 지중해변으로는 해상왕국 페니키아의 영광이 서린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다른 이방 강역으로 뻗어가고 남쪽으로는 먼 옛날 앗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파멸과 혼합의 상처를 안고 있던 사마리아 땅으로 진입한다.¹¹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면서 그 시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치유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자연과 하나님의 만남을 보여 주었으며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확장했다.

C.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은 창조 이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의 보편적 구원의 행위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제공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궁극적으로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¹¹ Ibid., 45.

말씀으로 함께 일 하시고 인류의 전 역사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령과 함께 활동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로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창조부터 인간의 모든 활동 가운데 인류 구원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인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령을 통한 구원활동이 세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사건은 구원사역의 목적이며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내재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 사건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한 역사적 구원 사역의 관계성과 인간의 선형성과 후형성을 통해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은 선형적으로 인간에게 역사적 특별한 신앙의 기억의 한 부분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후형적으로 신앙적 체험은 믿음으로 확증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어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중개자인 동시에 자기계시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한 초월적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며 인간은 창조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정향 된 존재이며 그 본성에 따라 초월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며 모든 인간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수용함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종교, 인종,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제한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에 서있는 그리스도인 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¹²

‘말씀의 육화’로 보여준 역사적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한 완성이고 인간 존재 가치의 최고의 실현인 동시에 성화된 인간 실재의 본질이 현재화된 증거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은 인간의 본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실존의 완성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고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 교회는 건물로 제한할 수도 없고 교회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정될 수 없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체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도덕적으로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에서나 교회이며 그 교회를 통해 이 사회와 세상이 더욱 더 발전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¹² 디모데전서 2:4-5

세상에서의 역할은 인류의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널리 알리고 그 복음을 밝혀 주는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다.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하시며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구로써 사용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는 창조와 화해가 함께 공존하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화해자이시다. 그러므로 인간과 창조세계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와 화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구속의 은혜 삶인 동시에 창조와 기적을 통한 자연 계시적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계시와 자연계시가 함께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하나님의 화해자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지는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성으로 상응되고 유사성을 지니며 증거 되어 계시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이 땅에서 창조세계와 인간 예수, 그리고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이다. 인간의 영적 관계성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 피조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지기로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주체로 역사를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계시를 통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은 타고난 양심의 본성으로 도덕적, 윤리적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죄에 속해 있음을 자각함으로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고 인간은 죄에 대한 심판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놓칠 수 없다. 그러기에 인간은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와 구원의 갈망을 막연하게 가진다. 이러한 인식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화해와 화목의 길이 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나 인류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을 수 있다는 자연계시(창조계시)에서 구속의 특별계시로 가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창조와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언약을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 언약의 순종이 사명으로 이어지고 윤리적 책임을 가지게 된다.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고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언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로 이어지는 특별계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기간 동안 창조 기적으로 보여준 자연계시와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특별계시의 접촉점으로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심을 보여준다. 조덕영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내가 창조주이다’ 라는 식의 공표는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¹³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의 사역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혼인잔치의 기적, 풍랑과 같은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등 표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창조사역을 통한 계시는 인류 구원을 향한 활동의 연장선으로 복음적 창조주 하나님 계시로 나타난다. 초대 교부

¹³ 조덕영, “예수의 자연 계시,” 창조론오픈포럼 9 (2015), 10.

이레네우스는 “역시 말씀과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표현하여 삼위일체적 창조를 언급한다.”¹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인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임을 언급하였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¹⁵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원천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희열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할 때 자연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¹⁶

¹⁴ Colin Gunton, "The Doctrine of Crea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Doctrine*, Colin E. Gun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43. 조덕영, “예수의 자연 계시,” 11에서 재인용.

¹⁵ 골로새서 1:15-17

¹⁶ 시편 19:1-6

모든 피조물 가운데는 거룩한 삼위일체의 계기가 나타나 있고 또 볼 수 있다. 피조물들의 자연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그것들의 형태는 아들의 지혜를 보여주고, 그것들의 유용성과 능력은 성령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속에 비록 가장 작은 풀잎이나 양귀비의 씨 속에도 현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⁷

순례의 길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바람의 숨결 속에서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현재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계시는 창조기적과 치유의 표적으로 신적인 속성과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부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이 창조세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D. 여행하는 인간

인간들은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오는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 전 지구적인 온난화,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대인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¹⁷ Martin Luther, *Tischreden I*, 395 이하; *Ibid.*, 88-9. 조덕영, “예수의 자연 계시,” 17에서 재인용.

삶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을 찾을 기회를 가지는데 종교적, 철학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여행을 통해 삶의 회복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이 여행이며 여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찾고자 하고 시간적, 공간적, 영적 여행을 추구하는데 인생의 여정이 여행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행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viator’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접두어 ‘via’는 사람이나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만든 자국, 즉 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뜻이 바로 ‘여행’이라는 의미이다(Oxford Latin Dictionary, 1985, 2053-54) 한자어 여행(旅行)은 나그네 려(旅)와 다닐 행(行)이 합쳐진 말로서 말 그대로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정주하지 않고 어딘가를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¹⁸

그러므로 여행은 어떠한 동기나 목적으로 장소를 떠나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 그르니에는 여행의 동기를 기준으로 그 종류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생계나 직업상의 필요에 따른 여행. 둘째, 유배형이나 망명으로 예시되는 강압에 의한 여행. 셋째,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점유하는 목적을 띤 사업상의 출장이나 국제 무역에 이루는 거래. 넷째, 탐험이나 세계일주 따위의 호기심에 의한 여행. 다섯째, 미래 여행과 같은 시간조작을 통한 여행. 여섯째, 초월과 승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행과 순례의 여행이 있다.¹⁹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이유처럼 복음서의 선한 백부장이나 사도행전의 고넬료처럼 군인이나 관료의 신분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임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¹⁸ 이승연,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6 (2016), 123.

¹⁹ 장 그르니에, *일상적인 삶* 김용기 역 (서울:민음사), 13-34. 차정식, “예수의 여행과 교통 공간,” 34에서 재인용.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²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²¹

두 번째 이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황제의 이방인 추방 칙령에 의해 강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²²

세 번째 이유로 사업상 목적으로 두아디라 시에 기반을 둔 사업가 루디아가 빌립보에 터전을 마련한 것을 볼 수 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²³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힐링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일상에서 잠깐 떠나는 것만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곤과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기에 좀 더 깊이 있는 종교적, 철학적 여행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렇듯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²⁰ 마태복음 8:5

²¹ 사도행전 10:1

²² 사도행전 18:2

²³ 사도행전 16:14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여행자로서 삶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규민은 “여행하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근본 방향을 의미하는 본질적 소명, 존재론적 소명을 갖고 여러 정황과 상황들을 함께 고려하고 검토함으로 일관성, 주도성, 현실성 있는 책임적인 실천을 행하는 실천적 소명을 가지고 이동하는 인간을 의미한다.”²⁴ 고 하였다.

E. 인생의 순례의 길과 영성적 여행

유동주는 “여행은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 뜻밖에 의도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계획하지 않은 길에도 즐거움이 있음을 터득하게 해준다. 낯선 곳에 가면 일상생활에서 닫히고 무더진 마음이 열리고, 빈손의 자유로움도 느끼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내 삶을 밖에서 담담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 준다.”²⁵고 하였고

발터 벤야민은

여행은 계획 없이 헤매며 그들의 삶을 보고 계획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발견을 통해 그들의 삶을 알고 선입견 없는 생각으로 여행지의 삶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골목길, 시장에서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²⁶

²⁴ 이규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본 소명-그 해석학적 이해와 기독교 교육적 함의,” *교회와 신학* (2014), 442.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23-124에서 재인용]

²⁵ 유동주, *지구 반대편에서 3650일* (서울: 나무와 숲, 2008), 271.

²⁶ 권용선, *발터 벤야민의 공부법* (고양: 역사비평사, 2015), 264.

여행을 통해 세상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세계로 열어 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자연과 맞닿으며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고 함께 호흡하면서 가지는 행복감은 세상 속에 던져진 자신의 실존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고 자연과 숨 쉬며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감각을 열어놓고 능동적인 자세로 명상에 빠져 들어갈 때 일상을 지배하는 복잡하고 바쁜 시간을 버리게 되고 자연 속에서 마음껏 시간적 여유를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여행은 모든 신체적 감각과 정신적 세계를 열어 놓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유로움에 능동적으로 빠져들고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여정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순례여행은 육체적,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면서 자아 성찰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적 성장을 이루는 훈련의 과정이다. 순례는 일반적 종교여행과 달리 단순히 종교의 부산물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신앙의 선구자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으로 신앙인으로 자신의 종교적 삶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러한 순례여행은 여행의 동기를 가지고 행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힘써야 한다.

성 알폰소는

“은 마음을 다해 들어가라. 홀로 머물러라. 다른 사람으로 나오라” 고 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서야 하며 자아 성찰을 통해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여행자를 5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 여행은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 2단계: 세상에서 나가서도 자신만 들여다보는 자. 3단계: 세상을 관찰해 무언가를 체험하는 자. 4단계: 체험한 것을 자기 속에 지니고 와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 5단계: 관찰한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동화한 후에 집에 오자마자 행동이나, 작품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는 자.²⁷

가 있다고 했다.

여행은 나의 현실에서 떠나 여러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찾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자연과 인간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인 것이다. 분명,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는 영성적 성장과 성화된 삶으로 발전되어 궁극적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해서 인간은 역사 속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실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셔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만들고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실재하시며 그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행 속에서 인간의 문화적 산물을 통해 그리고 역사의 자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실존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물 속에서 그분은 활동하시고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 인간과 인간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²⁷ <https://blog.naver.com/elly8811/222559113145> (11.11.2022 접속)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인간의 인격적 다양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연의 신비와 광활함과 웅장함을 보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애니미즘, 샤머니즘처럼 단순히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세계로 오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의 여행이며 그 여행을 통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올바른 신앙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한 주체적 존재로 봄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세상 속에서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고 상대를 이해하면 자신의 실존의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 자아의식의 이해는 세상의 인간 사회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와 하나님 이해가 가능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세계에서 그 문화와 인간의 삶을 함께 사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며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은 새로운 세계의 문화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은 떠남 그리고 만남, 나눔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나로 인해 그들이 변하고 또 그들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행은 인간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삶의 탈출구 역할을 하지만 또한 정신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행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행을 하면서 역사, 문화, 자연을 만나는 총체적

경험을 통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며 여행의 시간은 직접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과 변화가 인간을 한 단계 성숙한 삶으로 발전하게 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공헌하게 한다. 고전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인생의 여행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자아 성찰을 통한 내적, 영적 여행을 보여주며 신의 도성에서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를 의미하며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존 변연은 *천로역정*에서 잘 표현하였다.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에서 이승현은 “여행하는 인간의 신앙발달을 생애 주기로 조망하여 준비, 떠남, 채움, 맞춤, 나눔, 비움, 돌아옴의 여덟 단어의 여행언어”²⁸로 표현하였다. 이 신앙발달 생애주기 여덟 단어가 여행을 준비하고 돌아오기까지 과정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1) 준비

여행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은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여행을 함께 할 동행자와의 첫 만남과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여행지에서 할 일을 계획하고 나누는 시간이다.

인간의 삶의 시작은 모체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던 것과는 달리 인간의 삶은 이미 모체 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과제는 태아가 모체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신앙의 부모와 조부모, 신앙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는 신앙에 기초한 돌봄과 기도, 태화는 태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의 여행에 대한 무의식적

²⁸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20.

기대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줄 것이다.²⁹

이 시간에 동행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성을 함양하며 여행지에서 얻어 가져가야 할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며 준비하는 과정이다. 먼저 출발 6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식사와 다과를 나누며 준비를 하는데 먼저 6주 전 첫 만남에서는 참가자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주최 측에서는 여행에 대한 소개와 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책을 정해서 매주 만날 때 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5주 전에는 참가자들이 여행지에 대한 위치, 인구, 민족, 언어, 기후 등 지리적, 환경적 자료를 수집해서 토론하는 과정에 여행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4주 전에는 팀을 만들어 여행지에 대한 종교, 문화, 역사, 정치, 교육 등 사회적, 문화적 자료를 수집해서 팀별 토론을 하며 여행지에 대한 활동할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 3주 ~ 2주 전에는 여행일정과 여행지에서 활동을 만들어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어 본다. 마지막 1주 전에는 최종 점검을 하고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한다. 여행의 기대와 설렘의 6주 시간을 통해 여행 공동체, 삶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 됨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타인과 다름, 단점,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2) 떠남

어머니의 자궁에서 떠남은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으로 시작된다. 여행의 떠남은 새로운 여행지로 출발의 시작점이다.

이 세상에서 첫 여정은 양육자의 신뢰에 기초한 관계 그리고 그 신뢰에 기초한 관계가 지속적일 것이라는 대상영속성의 획득은 인간이 세계를

²⁹ Ibid., 143.

향한 삶의 여정을 떠나는데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이 떠남의 근거가 되는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집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탕이 될 때 떠남은 돌아옴을 예정으로 하는 긍정적인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떠남이 세상을 향한 자발적인 나아감과 성장이 아닌 불안과 불신에서 비롯된 수동적인 밀려남이 되면, 자아는 무의식중에 끊임없이 안정성을 찾아 방황하게 된다.³⁰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동행자와 함께 하는 즐거움과 새로운 만남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여행에서 주는 행복감은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방황의 시간이나 자의가 아닌 타의에 떠남이라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을 출발하면서 여행에 대한 감사함과 여행 일정 동안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여행을 출발해야 한다. 여행을 출발하면서 빠진 것이 없는지 동행자들에게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배려가 필요하다.

3) 만남

인생의 성장과정에서 유아기 때 부모의 울타리에 있다 아동기를 지나면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육의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하게 된다. 이규민은 “아동기는 특히 제도적인 학교에 소속되는 때로서 자신의 내적 충동과 사회적 역할, 기대, 규범 사이에 일종의 균형과 대화를 지속하는 시기이다.”³¹고 하였다. 만남이 그 동안 가족에만 치우쳐 있었다면 확장되어 또래 친구나 형, 동생, 선생님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처음 접하게 되며 가족 안에서의 규범 아닌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익히게 된다. 그리하면서 그 사회 속에서

³⁰ Ibid., 144.

³¹ 이규민 외3인, *영유아기, 아동기를 위한 영성교육* (서울:한국기독교교육교역연구원, 2008), 52.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4에서 재인용.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주위에 도움으로 극복하기도 한다.

여행에서의 만남은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지에서 낯선 자연환경의 만남, 새로운 문화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등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의, 식, 주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여행지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게 해주며 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마음을 열어준다.

4) 채움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다양한 경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여행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통해 각자가 가진 생각을 나누며 자신이 놓친 생각들을 함께 채워 나가야 한다.

채움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도달한 인간이 이전의 만남과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내적, 외적 방황과 탐색을 통해 자신의 참 자아를 찾으려 고민하고 신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과의 친밀함과 신앙적 친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등 다양한 실존적, 해석적 질문들을 던지는 시기이다. 청년기가 되면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³²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그 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³² Osmer R. Richard,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78-280.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6에서 재인용.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함의를 찾게 된다. 그것은 우리 각각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확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에게 하나님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삶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

5) 맞춤

성인기로 들어오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 통해 자신이 깨어지고 다듬어졌다면 유한한 인간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이다. 그 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흩어져 있는 삶의 퍼즐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모습으로 맞추어 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그 동안 여행을 통해 정리해 온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 기도문을 작성해 보고 여행을 하는 동안의 경험 중 나 만에 에피소드를 글로 기록해 본다.

6) 나눔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천인 것이다. 이규민은 “이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로서 경험, 지식, 역량, 경륜이 무르익어 요직, 중직에서 한참 힘 있게 일할 나이라고 보았고 통상 40세 이후부터

60대까지를 가리킨다고 말하였다.”³³ 그리고 헨리 나우웬은 “*탕자의 귀향에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인간이 평생 감당해야 할 소명을 온전히 보여주는 표상이라 보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소명이라는 것이다.”³⁴

이처럼 이 시기는 그 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웃과 사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해 나누는 시기이다. 이러한 나눔이 새로운 생산 활동이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거름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넘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결심하는 소명의 때이다. 여행의 다양한 일정 가운데 현지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지 학교, 고아원, 농장, 목장, 가내 수공업 공장 등을 수배해서 방문하고 함께 노동을 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인생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다.

7) 비움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이 비움의 시간이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에서의 추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승현은 이 시기를 노년기의 돌아옴의 단계를 대비하며 내적, 외적 비움을 경험한다. 즉, 삶의 여행의 후반부를 지나며 삶에 불필요한

³³ 이규민, “중년, 인생의 가을: ‘깨어남’의 시간,” *교회교육* (2010), 14.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7에서 재인용.

³⁴ Nouwen Henri J.M, *탕자의 귀향* 최중훈 역 (서울: 포이에마, 2009), 49.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7에서 재인용.

내적, 외적 짐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며 동시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노화에 적응해가야 한다.³⁵

이 시기에 비움은 내려놓음, 낮아짐으로 종교적, 철학적으로 그 동안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며 유한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현 주소를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낮아지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겸허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눔을 통한 비움의 과정이 자발적 가난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³⁶

바쁜 여행의 일정을 마치고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행에서 불필요한 감정을 비우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SNS나 연락처를 나눈다. 그리고 돌아가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구매하고 그 동안 여행을 정리하면서 카드나 편지를 써 본다.

8) 돌아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여행하면서 힘든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고

³⁵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8.

³⁶ 마태복음 5:3-10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노년기를 의미하는 이 시기는 신앙과 자아에 있어서의 정체성의 대통합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기이며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돌아옴’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원으로의 회귀,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수미일관(首尾一貫), 인간 삶의 완성이자 마무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돌아옴’의 귀결로서의 죽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최종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³⁷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것은 인간은 늙어가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생로병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탄생부터 죽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고민을 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이 질문들의 대답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곳 본향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 그 곳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여행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동안 밀렸던 일들을 정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1주 후에는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기로 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계획, 그리고 새롭게 계획한 것들을 실행에 옮겨보는 것이다. 2주 후에는 여행을 하면서 만난 동행자들을 만나서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고 여행지에서 느끼고 이야기한 것들을 나누며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해 본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여행도 좋지만

³⁷ 이승현,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148.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여행하면서 힘들고 고난 받는 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여행을 계획해 본다.

여행에 있어서 영성적 여행을 지향하는 이유는 여행자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넓게 보고 여행자가 필요로 하는 신앙과 영성을 찾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데 힘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여행자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인간, 세상에 대한 개방성과 헌신을 추구하는 인간,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초월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³⁸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는 여행이며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이 여행의 핵심 단어는 초월성이다. 초월성은 전통적인 영성훈련에서 강조되어 온 기도나 명상, 예배, 말씀묵상 등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다.³⁹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는 시간적, 공간적, 초월적 여행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시간적 여행은 전 생애에 걸친 인생 여행으로 인생의 8단계를 거쳐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례여행이며 또 세대를 초월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이며 긴밀한 교회로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 여행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의 여행도 있지만 전 세계적, 전 지구적, 전 우주적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공간여행 중 간접여행은 미디어, 책, 문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간접 체험을 통해 공간의 이해와 포용을 향상시킨다. 또한 직접 떠나는 여행은 직접 세상을 접하고 체험함으로써 세상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자극이 된다. 그리고 선교적 여행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로 섬김과 헌신의

³⁸ Ibid., 149.

³⁹ Ibid., 155.

실천적 여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과 인간의 삶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하고 전 우주적 인간의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여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영성 훈련이다.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 마지막 지점이 죽음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지점은 돌아 감의 종착역인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십자가로 희생하셨음을 자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재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대한 소명과 헌신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이끈다.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은 시간적, 공간적, 초월적으로 확장하고 개방화되어야 하며 여행자는 인생의 순례 여정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고 직접적, 간접적인 여행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부활의 구속사적 사건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여야 한다.

Ⅲ. 순례신학

A. 영성적 여행의 순례의 길

기독교에서 순례의 오랜 전통을 찾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 다윗의 이야기, 바벨론 포로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바울의 선교여행 등 수많은 이야기가 순례의 연속성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래는 “하나님은 순례를 단순히 신앙적 표현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교육의 기회로도 삼으셨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례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⁴⁰ 고 한다. 현대에 와서 현대인들이 순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

순례는 일반적으로 Craig Bartholomew and Fred Hughes가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특별하거나 성스러운 장소를 여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Erich Howell은 “순례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했다.⁴¹ 사전적으로 순례는 종교 일반 종교의 발생지, 본산(本山)의 소재지, 성인의 무덤이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하여 참배는 일과 또 여러 곳을

⁴⁰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닮고, 따라 살면서,” *신학과 세계* 99 (2020), 365.

⁴¹ *Ibid.*, 364.

찾아다니며 방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⁴²

그리고 한자로 순례(巡禮)는 돌 순(巡), 순행할 순(巡)과 예도 례(禮)가 합쳐진 말로 여러 성지(聖地)를 차례(次例)로 방문(訪問)하는 의미이다.

이기락은 “순례를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본질적인 현상들 가운데 하나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룩한 장소를 향한 회귀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인간은 생명의 원천인 거룩함이 지배하는 장소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적인 현현의 장소들은 단지 성전만이 아니라 거룩한 물이 흐르는 곳, 또는 몇몇 언덕이나 동굴들, 심지어 거룩한 나무들과도 연관되어 있다.”⁴³ 고 하였다.

순례는 모든 종교들이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교인으로서 인생에서 꼭 한번 해야 하는 여행일 것이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도 매년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지로 이동을 한다.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년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때 성막 이후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매년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의 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중요한 행사였다. 이슬람교에서도 매년 성지인 메카로 무슬림들이 그곳을 향해 순례의 길에 오른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구약이야기의 장소, 그리고 출애굽 여행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의 사역의 장소, 바울의 선교여행의 장소 등 성경 이야기의 소재지를 찾아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아 순례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종교 개혁지나 종교

⁴² 표준국어대사전

⁴³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7 (2006), 133.

개혁자의 발자취를 찾아 순례여행지로 유럽이나 미국을 찾는다. 그 뿐만 아니라 스페인 산티아고에 콤포스텔라에는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도보로, 자전거로, 차량으로, 말을 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장소에 두고 먼 길을 떠나 순례지로 여행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얻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일까?

김영래는 “순례를 신학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신학적으로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순례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⁴⁴ 여행은 떠남과 돌아옴의 이야기이며 성경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에서 떠나고 그 원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다. 웨슬리의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처럼 죄로 인해 떠난 인간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둘째로 역사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다.

Dee Dyas는 순례를 인간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면서 순례의 전통이 성경의 역사 안에서 형성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의 역사는 순례의 역사로 볼 수 있다. 모든 영혼들은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덴동산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주의 여정에 올랐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예언자적으로 그는 모리아 산에서 자식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했다. 후에 예루살렘이 건설된 이 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순례의 장소가 되었다. 유대인들은 매년 세 번씩 국가와 영적일을

⁴⁴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63-396.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영성 순례를 해야 한다.⁴⁵

순례여행에 앞서서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지역을 공부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면 단순한 관광에만 멈추지만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학문적 지식과 이해가 있다면 다가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의 발견과 성찰이 다가오며 삶에 있어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 기회가 된다. 특히 성지순례에 있어서 성경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성지를 방문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신앙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과 관계도 새롭게 변화된다. 셋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순례를 계승하여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로 간주했다.

Dee Dyas는 중세교회가 “삶의 순례” (life pilgrimage)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여 세 가지 형태의 순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장소 순례,” (place pilgrimage) “도덕 순례,” (moral pilgrimage) “내면 순례” (interior pilgrimage)로 불리면서 순례의 다층적 이해와 실천을 유도했다.⁴⁶ Dyas에 의하면 장소 순례는 “이동성, 성지, 성자, 성유물, 용서, 위험 및 유혹” 에 중점을 두었고, 도덕 순례는 “안정성, 부름, 소명, 복종, 책임, 공동체, 봉사 및 사랑” 을 강조했다며, 내면 순례는 “안정성, 물러섬/고독, 기도/명상, 하나님과의 만남, 환상 및 천국의 소망으로 수도원 운동” 을 중요시했다고 한다.⁴⁷ 삶의 순례는 하나님의 부름에 몸으로 응답하고, 이웃을 마음으로 섬기며,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성에 참여하는 순환적 방식으로 신앙성장을 이끌어 준다. 그래서 Dyas는 “삶의 순례의 중심적이며 핵심적 표현은 죄를 거부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부름이 있는

⁴⁵ Dyas, "Pilgrims and Pilgrimage, Pilgrimage in the Bible" in Rusu, " Christian Life as a Pilgrimage," 371에서 재인용.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67에서 재인용.

⁴⁶ Dee Dyas, "Medieval Patterns of Pilgrimage; A Mirror for Today?" Adnams, "Pilgrimage," 371에서 재인용.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68에서 재인용.

⁴⁷ Ibid., 140에서 재인용.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69에서 재인용.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라고 했다.⁴⁸

순례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호흡하시며 그곳에서 참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실재를 발견할 때 자신의 내적 변화를 통해 사회적 봉사, 도덕적 회복, 종교적 섬김의 실천으로 변화된다.

첫째 장소 순례는 공간적 여행을 하는 것으로 역사적 가치와 이야기를 찾아 여행을 함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고 느끼며 그 장소와 건축물, 물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특히 도보여행은 단순히 걷는 반복되는 행동으로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 그러므로 걷는다는 것은 모든 신체의 감각과 정신적 세계를 열어 놓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삶의 여유가 그 동안 복잡한 세상의 삶을 버리고 자연과 사물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례의 길을 열어준다.

둘째로 도덕 순례는 시간적 여행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을 순례의 연속으로 본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내면 순례는 초월적 여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적 훈련의 형태이다. 성경 속 이야기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인물들과 존 웨슬리의 규칙적 영성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시절 동생 찰스 웨슬리와

⁴⁸ Ibid.

신성회(Holy Club)를 조직해서 매주일 성만찬을 받으며 매일 규칙적으로 개인기도 시간과 성경 읽기를 지키면서 경건생활에 매진하였다. 이렇듯 내면 순례는 영성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의 기적을 맞볼 수 있다.

넷째로 순례의 여정은 물리적인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영적으로 형이상학적 진리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참 진리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인생에 있어서 순례의 길이며 최종 목적지인 것이다.

순례는 물리적/외적 훈련에서 영적/내적 훈련으로 이어지면서 그 신학적 가치를 확장해 나간다. James Harpur가 밝히듯이

“ ‘순례자’ (pilgrim)와 ‘순례’ (pilgrimage)를 뜻하는 영어 표현은 라틴어 ‘peregrinus’ (‘통하다’ 는 의미의 ‘per’ 와 ‘땅’ 을 의미하는 ‘ager’ 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순례’ (pilgrimage)는 ‘땅을 통해서’ 라는 뜻이다.)로 분명히 여정이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장해진 목적지를 암시한다.”⁴⁹

다섯째 순례의 신학에서 “여정”은 매우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다. 인생은 순례의 길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인 것이다. 태어나서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를 지나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을

⁴⁹ James Harpur, *Pilgrim Journey: A History of Pilgrimage in the Western World* (Banbury Road, England, Lion Hudson Limited, 2016), 9.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0에서 재인용.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례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순례가 물리적 또는 관상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여정이라는 개념이 중심이 된다.”⁵⁰ 고 하면서 “순례자는 개인적 삶의 중요한 단계와 사랑, 운명, 고통과 같은 삶의 거대한 신비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정을 떠나야 한다.”⁵¹

김영래는 순례에 있어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순례여행은 인간의 능동적 의지로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단순한 실천적 행동으로 자신의 변화를 이끄는 신앙적 학습이다. 따라서 순례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 육체적 불편함과 고통을 이겨내는 수도 적인 일을 감당한다.

순례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또는 영적 훈련은 신앙의 연속성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순례라는 학습의 “긴 여정”(peregrination)을 살아간다.⁵²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킨 Martha E. Stortz은 “순례를 변형을 목적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육체를 사용하여 의도적인 이탈을 시도하는 특별한 여정이다.”⁵³고 하였다.

Stortz가 설명하는 순례의 교육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순례는 “의도적 이탈”(An International Dislocation)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순례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심오하게 낯선 어떤 곳을 향해 출발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상이 되어왔던 것을 단절하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⁵⁰ Harpur, *Pilgrim Journey* 10.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0에서 재인용.

⁵¹ Ibid.,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0에서 재인용.

⁵²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324; Martha E. Stortz, "Practitioner: Pilgrimage and Formation for Ministry," *Reflective Practice: Formation and Supervision in Ministry*, 33 (2013), 197에서 재인용.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2에서 재인용.

⁵³ Stortz, "Practitioner as Pilgrim," 198.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2에서 재인용.

순례자들은 모든 변화의 거친 면들을 경험한다.⁵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일반적 단순한 활동보다 자신에게 한계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 누리던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관상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Lawrence A. Cremin은 교육이란 “지식, 태도, 가치, 기술, 민감성과 이러한 노력의 모든 결과들을 전달하고 일으키거나 습득하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⁵⁵ 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의도성이 필요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즐기는 자세에서 즐거움과 배움이 함께하는 것이다.

둘째, 순례는 “변형을 목적으로” (For the Purpose of Transformation)한다. 이에 대하여 Stortz는 “순례자들은 변형을 목적으로 삼고 익숙함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다시 방향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존의 방향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가거나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한다. 이탈은 영속적 재정착의 종결을 돕는다.”⁵⁶

순례의 길에서 일상의 이탈을 가지면서 새로운 변화된 일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변화된 일상으로 기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열게 된다. 김영래는 “이러한 변화된 경험을 통해 순례는 여가를 즐기는 여행과 구별된다. 여행이 현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하는 쉼을 제공한다면, 순례는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의미와 실재를

⁵⁴ Ibid., 199.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2에서 재인용.

⁵⁵ Lawrence A. Cremin, *Public Education* (New York: Basic Book, 1976), 29.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2에서 재인용.

⁵⁶ Stortz, "Practitioner as Pilgrim," 201.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3에서 재인용.

획득할 수 있는 변형을 목적으로 삼는다.”⁵⁷고 하였다.

셋째, 순례는 “영혼을 인도하는 육체의 사용” (Using the Body to Mentor the Soul)을 특징으로 지닌다. 이에 대해 Stortz는 “순례는 육체를 변형의 도구로 만든다. 육체는 순례자들로 하여금 음식, 식수, 잠자리,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같은 생존의 필수요소에 집중하도록 한다.”⁵⁸

순례는 비움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육체적, 물질적 생존의 필수요소 부분만을 요구한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진리의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가난함은 비움으로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순례는 공간적 이탈과 의도적 육체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이러한 발견이 순례의 길에서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Brett Webb-Michell은 순례 가운데서의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했다. 그는 순례에서 만나는 인간의 한계를 곧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John Main의 한계(limitation)에서 초월(limitless)로의 변화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삶은 자신의 한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초월의 삶으로 옮겨가는 일련의 진보를 경험한다.”⁵⁹ 그는 이 과정에서 순례는 Main이 제시한 “훈련(discipline), 집중(concentration), 헌신(devotion)의 삶”⁶⁰을 살도록 이끈다고 했다.

⁵⁷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3.

⁵⁸ Stortz, "Practitioner as Pilgrim," 20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3에서 재인용.

⁵⁹ John Main, "The Witness of Monastic Prayer," *Monastic Studies* 18 (Christmas 1988), 39.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4에서 재인용.

⁵⁹ Ibid., 46.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4에서 재인용.

⁶⁰ 창세기 32:26-28

순례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순례의 길 속에서 뜻 밖에 의도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순례의 길에서 육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욱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며 인간의 죄성, 나약함, 한계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 신학의 회개, 청의, 거듭남, 성화와 상통된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 어떤 자극적 상황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로 변환될 수도 있겠지만 구도자적 인생의 삶을 통해 삶이 변화되기도 한다. 이런 삶의 변화는 자신의 의도적인 변화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한 성화된 삶이 가능하며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초월적인 영성의 훈련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야 한다. 순례여행을 마치고 우리 삶 속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삶이 순례의 길로부터 연계되어야 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⁶¹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⁶²

야곱과 바울은 순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고 극적으로 완전히 변환되었다. 이처럼 순례의 길 위에는 성령을 통한 변환의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

순례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나’와 ‘나의 것’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확장되어 ‘우리의’ 그리고 ‘우리’로서의 삶의 인식에 계속 가까워지는 것이다.⁶³ 더 나아가 순례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를 수직적으로 ‘상승’ 하는 성장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타인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self-in-God-with-others)으로 확장되는 성장과 변화로 여기는 것이다.”⁶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⁶⁵

겻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이 궁극적인 순례 여정의 목적은 초월성으로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ebb-Mitchell은 “순례의 교육적 형태가 전인적이며 순례가 우리의 삶에 제공하는 것은 몸, 마음, 영을 존재의 하나, 통합, 농축, 전 구조로 묶을 수 있는

⁶² 사도행전 9:15-18

⁶³ Webb-Mitchell, *School of the Pilgrim*, 2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5에서 재인용.

⁶⁴ Ibid., 28.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5에서 재인용.

⁶⁵ 요한복음 17:21

기회이다.”⁶⁶ 고 했다. 순례는 신앙적인 목적으로 성지나 성물처럼 종교적 어떠한 대상을 보러 가는 과정으로 걷고,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을 통해 순례자의 마음(mind), 몸(body), 영혼(spirit)이 하나 되는 교육적인 여행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⁶⁷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외와 경배의 자세를 보여준다. 거룩한 순례지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자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순례의 여정은 거룩한 시간이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된 시간이다. 순례는 경험적 학습 방법이다.

Dent C. Davis는 경험을 통해 영적 갱신과 변형을 이끌어내는 순례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했다.⁶⁸ 얇의 과정은 그 자체가 경험적⁶⁹이라고 했으며 순례는 전인학습 (Whole-Person Learning) 을 유도하는 유의미한 기독교 교육 방법이라고 했다. 사실상 전인학습을 통해 “인지적(Cognitive), 체화적(Embodied), 영적(Spiritual)” 학습이 통합적으로 일어날 수

⁶⁶ Webb-Mitchell, *School of the Pilgrim*, 31.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5에서 재인용.

⁶⁷ 출애굽기 3:2-5

⁶⁸Dent C. Davis, “Enacting the Story: Pilgrimage, Learning and Renewal in Ministry,” http://old.religiouseducation.net/member/06_rea_papers/Davis_Dent.pdf (2020년 9월 13일 접속).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7에서 재인용.

⁶⁹ Ibid., 2.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7에서 재인용.

있는 기회가 바로 순례와 같은 경험학습이다.⁷⁰

순례여행은 배움의 장소이며 여행의 준비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대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지식을 익히며 이러한 학습 내용을 가지고 현지에서 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경험적 학습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경험학습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특히, 성지순례여행에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체험이나 요단강 가에서 행해지는 세례식 등

현장에서 행해지는 체화된 학습은 인지적 학습에서 습득된 지식을 내면화 시키면서 행위로 실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다. 그리고 신앙의 순례에서는 종교적 초월 경험이 즉, 기도, 예배, 찬양을 통한 영적학습으로 일어난다. 이 때 인지와 체화의 과정을 통해 전달된 지식은 하나님과의 내면적 관계 속에서 체험될 수 있는 차원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 때 영적 차원의 활동은 영혼육이 통합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성(wholeness)을 본질로 삼는다.⁷¹

이러한 인지적, 체화 적, 영적학습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학습을 제공하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영성적 훈련을 여행 일정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때 순례자로 또 학습자로서 받은 감동은 순례 이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게 된다.

Lauren Artress는 영성훈련의 세 단계 과정의 “정화(purgation), 깨달음(illumination), 교감(communion)” 을 순례 경험에 적용하였다.⁷² 첫 번째

⁷⁰ Ibid., 4.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8에서 재인용.

⁷¹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79-380

⁷² Lauren Artress, *Walking a Sacred Path: Rediscovering the Labyrinth as a Spiritual Tool* (New York: Riverhead Book, 1995), 29-30.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1에서 재인용.

정화는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자신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정화된 영혼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순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George는 정화를 “순응”(surrender)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케 하심”(a divine detox)⁷³을 얻는 과정이다. 이때 우리는 “걱정, 불안, 좌절, 공포, 의심, 절망”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다.⁷⁴고 하였다.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고 영적인 자유와 여유가 생긴다. 비움을 통한 영적인 자유와 여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에 내가 맞추어지는 시간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 순례는 경쟁이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향해 천천히 여유를 가지며 채워 나가는 시간이다. 힘들고 먼 여행을 할 때 동행하는 자와 힘든 짐들을 나누고 비우며 가야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순례의 길도 함께 하는 순례자와 힘든 자신의 짐을 나누고 비우며 함께 끝까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깨달음은 영적 훈련의 결과이다. George는 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에 대한 깨달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⁷⁵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깨달음(illumination)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함께 걷고, ‘그의 고통을 나누는’ 친교를 구하길 원하는 것이다.⁷⁶

⁷³ George, "The Discipline of Christian Pilgrimage," 2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1에서 재인용.

⁷⁴ Ibid.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1에서 재인용.

⁷⁵ Ibid.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2에서 재인용.

⁷⁶ Ibid., 26.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2에서 재인용.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⁷⁷

깨달음은 순례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남,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발견하는 경험이다. 여행의 시작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휴식, 경험, 관광으로 시작되지만 인간적 관계로 이어져 우리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여정으로 이어진다. 먼저 나의 삶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로부터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 발전해가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삶, 지적인 접근을 통해 의지적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행을 통해 신앙적 새로운 발견과 체험을 하면서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순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교감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George는 “순례의 여정에서 목적지가 중요한 만큼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⁷⁸ 인간은 예배자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순례 또한 예배의 연속상에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40년 광야 순례의 과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에서 시작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⁷⁷ 빌립보서 3:10

⁷⁸ George, “The Discipline of Christian Pilgrimage,” 26.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2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예배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이웃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더욱 더 확장되어 사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의 세계와 소통하며 교감을 나누는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한다. 김영래는 “순례의 완성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다. 예배, 기도, 찬양은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순례에 있어서 최상의 마무리가 된다. 이 단계에서 몸으로 시작된 순례가 정신적 발견을 거쳐 마침내 영적 완성을 이루게 되고 비로소 순례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일어난 신앙여정의 이야기가 된다.”⁷⁹고 하였다.

은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⁸⁰

B.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삶 따르며 닦아 가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순례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Irena Widmann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했다.⁸¹

⁷⁹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3

⁸⁰ 시편 100:1-5

⁸¹ Irena Widmann, "The Way as the Goal: Animating the Medieval Pilgrim Route in Postmodern Switzerland," *Bible and the Contemporary World* 1(1), 54.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3에서 재인용.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⁸²

초대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명명하고 그들을 핍박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세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에 현세의 고통과 고난도 순례의 여정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순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삶의 고백이다. 의도적 순례이건, 삶의 순례이건 순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 훈련이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⁸³

자기 부인은 더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며 이제는 걸기 어려운 길을 바라보지 않고 앞서 걸으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⁸⁴ 십자가는 불행도 아니고 가혹한 운명도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인 고난이다. 십자가는 평범한 존재와 결부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과 결부된 고난이다”⁸⁵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낯선 것이 아니라 순전한 은혜와 기쁨인 것이다.”⁸⁶

⁸² 베드로전서 4:16

⁸³ 마태복음 16:24-25

⁸⁴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6) 506, 111.

⁸⁵ Ibid., 111-112.

⁸⁶ Ibid., 117.

순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삶을 배우며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전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논증을
 할 존재가 아니며 그분의 존재에 대해 인간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 구원의 사랑을 믿으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참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적 도덕,
 윤리라는 틀을 가지고 그 속에서 구속되어 눌러서 사는 잘못된 거룩함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거룩함은 온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참 사랑을 누려야 한다.

Jim Forest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모든 순례는 여정 중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활기를 찾는다.”⁸⁷ 그는 엠마오에서 마주친 낯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 “만일 여정 중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배제한다면 순례는 불가능하다.”⁸⁸고 했다. “순례자가 된다는
 것은 - 엠마오의 길 위에 선다는 것은 -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전념으로 듣기 위해 만남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⁸⁹ 그래서 그는 “엠마오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⁸⁷ Jim Forest, *The Road to Emmaus: Pilgrimage as a Way of Life* (New York: Orbis Book, 2007), 99.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4에서 재인용

⁸⁸ Ibid.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5에서 재인용.

⁸⁹ Ibid., 100.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5에서 재인용.

것은 ‘타인’ 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다.”⁹⁰ 라고 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 인생의 순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실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삶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순례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 생긴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Widmann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적 눈이 열리는 과정을 순례의 길로 생각했다. 이렇듯 순례가 가지는 역할로 정체성의 변화와 연관된 영성훈련이 있는데 첫 번째, Widmann은 순례를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으로 간주하면서 “제자화 훈련은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길 위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신 것처럼 순례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⁹¹ 고 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자의 모습이다. 이 여정 속에서 성령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 Widmann는 장소 순례가 “가시적, 경험적 공동체적 맥락을 알려준다고 했다.”⁹² 엠마오의 길 위에서 두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같이

⁹⁰ Ibid., 103.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285에서 재인용.

⁹¹ Widmann, “The Way as the Goal,” 5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5에서 재인용.

⁹² Ibid.

순례의 여정은 만남과 헤어짐의 길 위에 있으며 성령을 통한 만남은 신앙의 공동체로 발전된다. 신앙공동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경험하는 곳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세속적이어야 하고 그 삶이 더욱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더욱 더 그리스도인으로 빛나야 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개방성은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그 공동체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신앙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의 고백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Widmann은 순례의 여정에서는 몸, 마음, 영혼으로 “통합적으로 개입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다.⁹³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은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되고 변환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순례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깨닫게 되고 영혼육이 변환되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다.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구별하고 단일성을 드러내야 한다. 수도원과 세상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두 공간 속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현된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세상의 세속적인 모습과 내적인 갈등, 고민 등이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닌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서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⁹³ Ibid.

된다. 그러므로 순례는 단순히 세상 밖의 세상이 아닌 인간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Widmann은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의 길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⁹⁴고 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앙적 체험을 경험했다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되어 새로운 순례의 길로 인도하신다.

김영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 “따르고(following), 닮아가며(imitating), 믿음의 성도들을 따라 사는(enactment) 삶”⁹⁵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단계 김영래는 “따르기”(Following)는 삶을 순례로 사는 것이다.⁹⁶고 하였다. “따르기”는 시간적, 공간적 여행으로 부르심에 순종으로 떠남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떠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부르시는 그 분만을 믿고 떠나는 것이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깎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⁹⁷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즉시 따라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데 그것은 부르심

⁹⁴ Widmann, “The Way as the Goal,” 5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6에서 재인용.

⁹⁵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3.

⁹⁶ Ibid., 387.

⁹⁷ 마태복음 4:18-22

그 자체가 은혜였기 때문이다. 따라가는 것은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이며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순례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자, 부름 받은 자의 복종 행위가 즉각 이어진다. 제자는 예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응답하지 않고 복종의 행위로 응답한다.⁹⁸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의 유일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부르는 분이시다.⁹⁹

둘째 단계에서 김영래는 “닦기”는 정체성 연습으로 “예수님이 걸으신 대로 걷기”이다.¹⁰⁰ 하였다. “닦기”는 순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 희생, 헌신, 나눔, 순종, 기도, 말씀, 가르침 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 배우며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¹⁰¹

⁹⁸ Bonhoeffer, *나를 따르라*, 53.

⁹⁹ Ibid., 54.

¹⁰⁰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8.

¹⁰¹ 마태복음 26:39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의 길은 순종의 길이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동안 구속사적인 삶을 닮아 가기 위해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단계에서 김영래는 “따라 살기”는 소속감의 발견 또는 재발견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걸었던 방법으로 걷기이다.”¹⁰²고 하였다. “따라 살기”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성취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됨이 가능한 것이다.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오직 한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¹⁰³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¹⁰² Widmann, "The Way as the Goal," 55.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389에서 재인용.

¹⁰³ Bonhoeffer, *나를 따르라*, 54.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¹⁰⁴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제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를 초대 교회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과 시대적 역할을 기억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순례여행을 통해 가져온 감동과 변화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야 하며 새로운 순례여행을 계획하고 참여해야 한다.

C. 순례의 길에서 “이차적 의미” 발견

C. S. 루이스가 말하는 “이차적 의미”란 성경이나 그 해석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어떤 진술이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의 빛 아래 본래 저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를 통칭한다. 성서 속에 나타나는 이차적 의미 역시 색다르게 다루어야 할 특수한 신학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의 하나이다. 그런 면에서 “이차적 의미”는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 숨은 의미, 풍유/알레고리, 충만한 의미 등 다양한 용어들이나 더 진실한 의미, 더 중요한 의미에서 진실한 의미로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¹⁰⁵

그러므로 어떠한 문학적 작품이나 어떠한 사물, 현상을 보고 문자적, 현상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나 원인, 과정 등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어떠한 작품이나 사물,

¹⁰⁴ 사도행전 2:42-47

¹⁰⁵ 권연경, “C. S. 루이스가 말하는 더 풍성한 의미,” *신약논단* 21 (2014), 848.

현상 등을 접했을 때 일차적인 의미의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현상에서 “이차적인 의미”에 관한 더 풍부한 탐구로 시작된다. 이러한 이차적 의미의 해석이 순례자로 순례의 길에서 보고 느끼며 다양한 경험하며 그 여정 속에서 숨은 삶의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해석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

루이스는 성경이나 기독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적 상황에서 “말해지거나 기록된 어떤 것이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의 빛 아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들”이다. 라고하면서 그는 이차적 의미가 생겨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경험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루이스는 “우연의 일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¹⁰⁶ 고 하였는데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나중에 더 진실 되고 매우 중요한 이차적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순례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의 상황이나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 등 우연히 상황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이차적 의미로 부여된다.

두 번째로 유사성이다. 루이스는 “훨씬 더 경이로운 우연”이라고 하였다.¹⁰⁷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일이 일어난 상황의 경우가 시간이 지난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차적 의미가 부여된다.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만난다.

¹⁰⁶ 권연경, “C. S. 루이스가 말하는 더 풍성한 의미,” 835.

¹⁰⁷ Ibid., 837.

그런데 이러한 곳곳의 인간들의 삶도 비슷하며 인생의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것은 모두 같은 삶의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곳곳에 남아있는 설화나 신화적 이야기들은 인간의 삶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신화와 복음은 “이차적 의미”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화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토대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구체적 사건인 궁극적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되어 복음으로 다가온 것이다. 루이스는 문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신화와 복음과의 관계를 “신화가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사람의 문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승격된 것이 성경이라고 본다고 하였다.¹⁰⁸ 순례의 여행 속에서 인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그 속에서 이차적 의미를 발견하여야 한다.

세 번째, 루이스는 “저자는 몰랐던 나중의 진리가 저자가 알았던 진리와 긴밀하게 이어진 경우들이다.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더 풍성한 진리의 태반이기도 한 바로 그 동일한 실재와 닿아 있다.”¹⁰⁹고 하였다. 어떠한 진리나 이론적 지식 근거에 의해 다음 상황을 추측하고 확장해서 주장함으로써 다음 상황에서 이차적 의미가 확실하게 주어진다. 성경의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행의 길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는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참 예배자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할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현지에 대한 학습과 영적 훈련을 통해 여행지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다면 그 여정 속에서 진리의 이차적 의미를 발견하고 신앙적 체험을 경험할

¹⁰⁸ Ibid., 849.

¹⁰⁹ Ibid., 837에서 재인용.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행을 하면서 문화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저개발 지역 문화와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여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여행지에서 문화적으로 부딪힌다면 문화적 생활의 차이 때문에 힘든 여행을 해야 한다. 여행을 하면서 먼저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여행지에서 삶과 문화를 배우기 위한 배움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세상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열고 세상을 봐야 한다. 그러므로 여행을 하면서 생기는 우연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필연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과 각 나라의 문화적 접근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통찰력 그리고 여행 전의 충분한 여행지의 자료를 통해 학습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행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야 한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할 것이다.

D. 성지순례지에서 찾은 영성적 변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¹¹⁰

주님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를 뵈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시편 저자의 글에서 충분히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머물렀던 성소를 찾아가 그분의 체취를 맡고 싶은 간절함은 성지 순례 길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전통적인 회개와 속죄 방법의 하나가 성지 순례였던 것처럼 성지를 향한 순례의 길을 나서는

¹¹⁰ 시편 27:4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 해 봐야 할 숙제일 것이다.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리고 피투된 기투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를 자각함으로 이 세상을 순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역시 인생을 순례의 길에 비유하고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교회를 ‘순례하는 교회’ [『교회헌장』 (Lumen Gentium), 49~50항]로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¹¹¹ 기독교 신앙은 순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행을 함축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이다.

성지순례에서 가지는 체험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의 평범한 생활을 의미 있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감지될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¹¹²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의 변화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주위로 확장해 나가는 점으로 보았을 때 개인성화에서 사회적 성화로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다. 까를로 마짜는 “순례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아들인 믿음을 온 존재로 살아 내기 위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내딛는 깊은 신앙의 투신 행위이다.”¹¹³고 하였다. 인간은 거룩한 장소를 순례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초월적인 여행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례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구약시대 모세의 의해 성막과 성소가 세워지고 솔로몬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였다.

¹¹¹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7 (2006), 131.

¹¹²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132.

¹¹³ 까를로 마짜, *순례영성* 정인숙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132에서 재인용.

이 성전은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곳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¹¹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¹¹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그분 현존 자체가 성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몸에 거하시기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전을 향한 순례의 삶이 되어야 하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복음의 신앙공동체 교회를 통해 순례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사실 교회 내에서 순례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동시에 성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영감을 받은 바 적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순례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서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시초부터 나사렛 예수의 ‘길’을 뒤따랐던 성도들은 복음서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동참하기 위해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근원적인 장소들로 되돌아가기를 열망했다. 이러한 초기 순례들 사이에는 단순히 그냥 “사는 것 이상으로” “이러한 장소를 방문해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살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¹¹⁴ 고린도전서 6:19-20

¹¹⁵ 고린도전서 3:16-17

‘교회순례의 역사’ 안에서 세 가지 성서적-영성적인 범주를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그리스도교의 바탕이 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의 내용에 대한 불충실함에 대한 참회, 근본적인 사건들을 회상하고 다시 내면화하기 위하여 전례적으로 거행되는 성사와 신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등장하는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마음의 회개와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는 영적인 여정을 의미한다.¹¹⁶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순례지를 방문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먼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그 분으로 은혜를 받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문제의 매듭이 풀어지기를 기대하며 그곳을 방문한다. 그리고 순례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세상의 유혹을 떨쳐 버리고 멀리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감사함과 은혜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순례의 여정에서 가지고 돌아갈 것은 도덕도 지식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신앙적 체험으로 영적 영성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제공한다.

순례의 길에서 변화를 까를로 마짜는

순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점점 내면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에 점점 부합시켜 가게 되며 자신이 닮아야 할 최고의 모델인 순례하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된다.¹¹⁷ 그리고 순례에 참여한 신자들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보다 굳건한 믿음과 애덕을 향해 자기를 내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신앙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성화를 향한 여정에 점점 더 자신을 내어 놓도록 촉구한다.¹¹⁸

¹¹⁶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134.

¹¹⁷ 까를로 마짜, *순례영성* 정인숙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266.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145에서 재인용.

¹¹⁸ Ibid., 146에서 재인용.

고 하였다.

그는 영적인 변화가 개인성화에서 사회성화로 사회적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순례자적 영성을 가지고 인생의 순례의 길에 나서기 위해서는 삶의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며 순례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세와 지향하는 여행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정신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은 그분을 닮고 체험하기 위한 길이며 순례의 길 위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 하게하고 죄인임을 인식하게 함으로 순례의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삶을 사는 것이다.

E. 순례의 삶에서 선교의 삶으로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를 만들어가지만 그 인간 삶 속에 내재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속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을 통해 구원의 활동을 하신다. 영성적 순례여행의 여정에 있어서 여정의 장소마다 하나님이 실재하셔서 인간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세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한 신앙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내재된 신적 삶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래적 하나님의 신비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인간의 자기발견과 이해는 서로 상관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과의 연결점으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인류의 구원자이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를 통해 가시화되고 몸인 교회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을 향해 세상은 복음을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밖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먼저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원죄로 상실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교회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선교의 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인류는 모든 인종,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순례여행의 길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참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로 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아직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신앙의 구체적 경험으로 하나님과 직접적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관계성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서 보다 나은 세계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실재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향한 삶으로 지평이 확장되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증거하고 동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복음 선교의 자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 일상에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인생의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아모스 예언자는 순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지순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벰엘이나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성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의 일그러진 부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순례의 길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죄악으로 물들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벰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벰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벰엘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¹¹⁹

¹¹⁹ 아모스 5:4-6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나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¹²⁰

성 버나드는 “나의 영혼 속에서 발견한 영광의 삼위일체의 형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이해와 사랑이 그분을 반영하도록 모든 행동을 동기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¹²¹ 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은 그 연합에 있으며, 이 연합은 그 실체가 하나인 그러한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 라 부르게 하실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러일으키셨던 사랑의 달콤함이며, 소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해주시는데, 이것은 사실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¹²²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성 버나드는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과 성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할 가능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¹²⁰ 창세기 1:27

¹²¹ 성 버나드, *하나님의 사랑* 이석 역 (파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46.

¹²² Ibid., 173.

본성을 창조하신 분은 그것을 유지하고 보호하십니다.”¹²³고 하였다. 그 사랑은 나 자신이 아닌 우리 이웃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며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떠나라”라는 명령은 세상으로의 보냄으로 그 보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으로 오심도 사랑으로 시작되는 여행의 길이다. 우리도 순례의 길을 걷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에 대한 체험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이며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다. 그래서 순례의 길은 바로 선교의 길이며 순례자의 삶은 선교자의 삶으로 상통된다.

종교학자인 바덴부르크(Jacques Waardenburg)은 종교인들은 “세상과 삶의 주어진 것”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만 사건” 자체로만 보지 않고, 항상 그 사건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종교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것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 믿음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실체”와는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즉 종교인들은 자기의 주변에서 인식하는 실체와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것이다.¹²⁴

다양한 인종 그리고 수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으며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 어떠한 사건과 실체를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양화되고

¹²³ Ibid., 213.

¹²⁴ Jacques Waardenburg, *Religionen und Religion*,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6), 15-28. 박창현,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창12:1-9),” 223에서 재인용.

다원화된 종교와 문화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연의 일치와 문화적, 신화적 유사성 그리고 여행지 학습에 의해 발견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성서의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쓰였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류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배경이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자 하는 뜻과 구원의 이야기로 새로운 등장인물 아브라함을 통해 새 출발을 시키신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선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¹²⁵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보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안한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곳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이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하여 그 주체는 하나님이다. 즉, 이것은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이제 창조의 전적인 파멸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구 보존 결정의 해결책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계획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이다.¹²⁶

¹²⁵ 창세기 12:1

¹²⁶ 클라우트 베스터만, *천년과 하루* 손규태, 김윤옥 공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소, 1983), 27. 박창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¹²⁷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었으며
그 길은 광야에서의 순례의 삶이었다. 그 순례의 길에는 제단을 쌓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인간적으로 부족한
아브라함은 겸허하고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방인들 속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아버지 데라의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하나님을 믿으므로 타문화의
이해와 접근성이 용이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과 족속,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으신
것이다.

선교는 전 인류를 그 대상으로 하고, 특히 이방인을 그 주 목표로 한다.
아브라함은 선교의 사명을 받고 곧바로 이방인들의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에게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¹²⁸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겟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창12:1-9),” 233에서 재인용.

¹²⁷ 창세기 12:2-3

¹²⁸ Theo Sundermeier, *Konvivenz und Differenz*, Verlag der Ev.-Luth. Mission Erlangen, 1995, 27.
박창현,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창12:1-9),” 235에서 재인용.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벤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벤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¹²⁹

세 번째로 순례의 길은 평화의 행진이며 순례자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쫓는 자이다. 창세기 12장 5-8절 본문에서 보듯이 이방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믿는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치 않게 한다. 아브라함은 순례지에서 이방 신을 믿는 다른 문화권의 현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보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정성은 그들을 감동하게 하였다. 이런 순례자적 삶을 통한 선교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교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선교의 모델은 가나안의 정복적, 파괴적 선교의 방법과 대응되는 구약 성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평화적인 선교의 모델”이다.¹³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그리고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웃에게서 발견하고 그

¹²⁹ 창세기 12:5-8

¹³⁰ Sundermeier, 24. 박창현,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창12:1-9),” 239에서 재인용.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동시에 복음의 삶이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그들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삶이 순례자의 길이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 길은 인간의 육신의 욕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권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길이다. 그 길에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삶이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지금 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현세와 내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지금 이곳,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내세의 하늘나라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순례여행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선교사적 순례자의 사명이다.

F. 성경 속 여행의 역사

인류의 여행의 역사는 곧 인류의 이동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는데 초기 인류는 생존을 위해 이동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부의 축척과 세력 확장을 위해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류의 이동이 교통수단의 발전을 통해 더욱 더 가속화되고 현대는 노동이나 생존을 위한 기존의 목적 외에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 위해 자발적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즐긴다. 이러한 여행을 성경에서 인간의

여행의 역사로 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낙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방황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가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의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보내시고 떠남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이야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떠남,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내적, 외적갈등을 통해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의 인물들의 여행 이야기들이 현재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여정 속에서 웨슬리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인간은 회개와 뜨거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서 “칭의”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거쳐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신앙여정의 종착점인 “영화”의 과정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영화로 가는 삶의 여정이 인생의 여행으로 볼 때에 성경의 역사적 여행이야기와 맞물려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1.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의 사람 - 나그네의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명령인 생육과 번성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살아온 순례의 여정이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행의 시작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례의 험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나그네의 길을 곳곳하게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한 삶의 동반자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 여정의 진정한 친구였다.

1. 우르 Ur(창11:26~32):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조상 때부터 우르에 살면서 “달신”을 섬겼으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하란 중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 2. 하란 Haran(창12:1~5): 아버지 데라의 죽고 형제 나홀의 죽음 이후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서남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 3. 셰겔 Shechem(창12:6~7):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와서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다. 야곱이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모레Moreh: 가르치다. 상수리나무: 신탁을 받는 곳)이다.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을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다.

=> 4. 벧엘 Bethel(창12:8~9):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 환상을 본 이후 주어진 이름이며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호와 Yahweh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공공연 삶의 형식과 내용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척박한 현실에 가장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먹고 살 곳을 찾아 떠났다.

=> 5. 애굽 Egypt(창12:10~20): 아내 사라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과 명령 앞에서 한 인간의 나약함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은 안정적인 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이들에게는 위험한 땅일 뿐이다.

=> 6. 헤브론 Hebron => 7. 소돔 Sodom (창13:18):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땅으로 돌아왔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약속하신다(창13:14~18).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가며 벨기세텍에게 축복을 받고 십일조를(창14:17~20) 바친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창16:15). 소돔의 멸망(창19:23~29).

=> 8. 그랄 Gerar(창20:1~18): 헤브론보다 남쪽 네게브Negeb 사막과 가까운 곳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 را를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실수를 반복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9. 브엘세바 BEER-Sheba(창21:22~34): 맹세의 우물. 사라가 이삭을 낳은(창21:3) 이후 하나님의 비전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가나안에 영원히 거주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¹³¹

아브라함의 평생 여행의 세 단계

1.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행을 출발한다(창12:1~3).
2.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에서 의심과 갈등 속에서 여행의 여정은 믿음으로 이어간다(창15:1~5).
3.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 (창21:1~7, 22~34)

- 신약성경(눅16:22, 19:9, 요8:39, 히11:8~9)¹³²

¹³¹ 강신덕, *성경여행*, (서울: 도서출판토비아, 2017), 248. 참고

¹³² Ibid.

2.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우리 인생에서 여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다. 야곱과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신다. 입애굽 과정은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계획안에서 가나안의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계획이었으며(창45:5)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었다(창46:6).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입애굽 하게 되었고 애굽에서 엄청난 인구 증가를 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 요셉의 이민 정책을 통해 애굽 민족과 분리되어 정착을 하였고 목축을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그 민족은 순수혈통을 지켜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타국 살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의 긴 여정의 안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며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통해 세상 구원의 대리적 사명자로 이루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하였고(레19:2), 하나님의 임재소로서 성소를 만들게 하여 그곳에서 율법의 이해와(레10:11, 신33:10) 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을(레19:2, 레1~7장) 통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출25:22). 그리고 부름 받은 백성의 규모를 유지하는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레위인을 제외한 남성만 603,550명 민2:32)와 문제의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가나안을 허락했을

때(레위인을 제외한 601,730명 민26:51, 26:65)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거의 같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출애굽 40년의 광야 여행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창세기 1장 28절과 출애굽기 19장 4~6절의 비전과 사명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¹³³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¹³⁴

1. 고센 Goshen(출1:11)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살았다(창47:27). 19왕조 람세스2세 때 라암셋 Rameses(성경표현으로 고센) 신도시 개발에 히브리라는 천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했다(출1:11~14).
 - => 2. 홍해 Read Sea(출14:1~3)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 홍해와 막돌사이의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정착하였다.
 - => 3. 마라 - 홍해를 건너 삼 일을 걸어 처음 진을 친 곳이다. 모세가 바위를 쳐서 써서 못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꾼 곳(출15:22~26)이다.
 - => 4. 엘림(출15:27) - 신 광야 Desert of sin(출16:1, 17:1)에 도착하였는데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출16:1~3)을 시작하였고

¹³³ 창세기 1:28

¹³⁴ 출애굽기 19:4~6

하나님은 만나를(출16:11~20)내리시고 출애굽이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베풀어 주셨다.

=> 5. 르비딤 - 아말렉 전투(출17:8~13)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닛시(출17:15)라 하였다.

=> 6. 시내산 Mount Sinai(출19:1~2):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을 받고 십계명과 율법을 얻으며 성막을 만든다.

=> 7. 가데스 바네아 Kadesh Barnea(민13:25~26):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진 시내 광야 북쪽의 작은 성읍이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지만 부정적인 보고로 가나안 진입을 실패하게 되었고 이일로 다시 광야에서의 어려움과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 8. 에시온게벨 -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게벨 도착까지 아바라 광야를 38년 동안 유랑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가나안 동편 잇딤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출애굽 세대가 죽임을 당한다.

* 요단 동편(Trans Jordan):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와 민족.

=> 9. 에돔 Edom(1): 에서의 후손(창25;30) - 민20;17~20

=> 10. 모압 Moab(2): 세렛에서 아르논 골짜기 사이에 위치 - 민21:13~15, 21:26)

=> 11. 아모리인 Amorite(3): 아르논 골짜기와 압복강 사이에 위치 - 민21:32

=> 12. 암몬 Ammon(4) - 점령하지 못함(민21:24)

=> 13. 바산 Basan(5) - 민21;33~35, 민22:7~8, 민25:1~9

=> 14. 모압 평지 Plain of Moab: 요단강 동편에 위치.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쳤고(민33~36)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이다.

=> 15. 느보산 Mt. Nebo: 요단 동쪽 산지의 아바림 산맥에 있음. - 이곳에서 모세는 가나안을 보며 최후를 맞이함(신32:49, 34:1~6)¹³⁵

출애굽 구원의 여정 세 단계

1. 라암셋 즉, 고센에서 출발하여 르비딤까지 이르는 ‘구원의 여정’
2. 시내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심의 여정’ (출19:4-6)
3. 세상 가운데 가나안으로 ‘보내심의 여정’ - 세상 속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세상 구원의 중보자로 역할을 맡김.¹³⁶

3.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전쟁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 보이는 모합 평지에 도착해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를 치른다.

1. 길갈: 출애굽의 유일한 생존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사장과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만나 내리기를 그치셨다(수5:12).

=> 2. 여리고와 아이 Jericho & Ai(수5:13~8:29): 여리고 성벽을 온 백성이 함께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큰 소리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수:6~20).

¹³⁵ Ibid.,

¹³⁶ Ibid.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헤렘(herem) 명령을 어기고 그곳의 물건을 취함으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색출하고 아골 골짜기에 물어버린 이후 간신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수8:1~26).

=>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끝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

=> 3. 실로 Shilo(수18:1):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차리고 그 앞을 정복전쟁을 위한 본부로 삼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마무리했다(수19:51).

=> 4. 예루살렘 Jerusalem: 유다지파의 중심지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다윗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새로운 도읍지로 삼았다(삼하5:5~7).¹³⁷

4.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후 초기 400년 동안은 종교적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각 지역과 시대별 사사들(judges)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국가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체계가 약해서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 그리고 위협에도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중심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러한 위기 극복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인간의 생각, 자신들의 계획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며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보다는 인간적인 방편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사무엘은 왕정이 가져올 폐해를 백성에게 알렸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 사무엘을 설득하게 되면서

¹³⁷ Ibid.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다음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렸으나 이방여인이 가져온 이방신과 가나안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를 범하고 결국은 다음세대에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분열의 아픔을 맞게 된다. 이후 수많은 선지자들의 권고는 매우 강력했고 치열했으며 간절했으나 남 유다나 북 이스라엘이나 선지자들의 권면을 귀담아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지위를 남용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을 멀리하였으며 산당들이나 자기 집의 사적인 제단에서 우상숭배 하는 일을 즐겼고 문화적으로 장려하는 죄를 저질렀다. 결국 지도자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앓 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시키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7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70년의 순례의 여행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운동과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는 운동으로 이스라엘이 바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 왕국분열 BC 931 (대하9:31, 왕상11:43~12:20): 솔로몬의 죽음
- 북 이스라엘의 멸망 BC 722 호세아 (왕하17:6): 앓 시리아에 의해 멸망
- 남 유다의 멸망 BC 586 시드기야 (왕하25:8): 바벨론3차 침공에 의해 멸망

1. 1차 포로기 BC 605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 1년 - 유다 여호와김 3(4)년
(왕하24:1):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감

=> 2. 2차 포로기 BC 597 바빌론 느부갓네살 8년 - 유다 여호와김 1년

(왕하24:10): 에스겔이 여호와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감

=> 3. 3차 포로기 BC 586 바벨론 느부갓네살 19년 - 유다 시드기야 11년

(왕하25:8): 남 유다 왕국 함락

=> 4. 1차 포로귀환 BC 536 페르시아 고레스 2세 1년 (스2:1, 단6:16~24): 스투바벨, 예수아 인솔, 606년-70년=536년(1차포로 70년 후), 총49,897명

=> 5. 2차 포로귀환 BC 458 아닥사스다1세 7년 (스7:1~10): 에스라 인솔, 남자만 1,700명

=> 6. 3차 포로귀환 BC 445 아닥사스다1세 20년 (느2:1~8): 느헤미야 인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5.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순례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하였고 삼십 세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예루살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며 공생애 활동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마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보다 더 강한 사랑의 실천의 순례자적 여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사역을 땅 끝까지 감당하라고 명령하신다.

1.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 (마2:1~6, 눅2:4~7, 미5:2)

=> 2.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

=> 3.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

=> 4. 유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차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였다.

=> 초기 활동지역: 가버나움,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벳다바라, 에브라임,

=> 중기 활동지역: 가사, 나사렛, 가버나움, 나인, 거라사, 벳새다, 게네사렛, 두로, 시돈, 데가볼리, 달마누다, 가이사랴 빌립보, 다볼산,

=> 말기 활동지역: 나사렛, 가버나움, 가나, 여리고, 베다니, 예루살렘, 수가성(세겜), 사마리아

5. 예루살렘 7일: 마지막 베레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 사역을 하시고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 정화사역, 마지막 유월절 식사, 감람산 갯세마네에서 체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종교법정, 빌라도의 요새에서 빌라도 1차 심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심문, 빌라도의 2차 심문(사형선고)을 거쳐 골고다 십자가 처형으로 못 박히셨다(마27:34~36, 눅23:27~33).¹³⁸

6. 사도 바울의 순례 적 선교여행

사도 바울은 베나민 지파 출신이며 바리새파 집안이다. 그리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자랐고 헬레니즘 교육과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식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스승은 그 당시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였던 바빌론에서 온 힐렐의 제자 바리새파 가말리엘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교에 정통한 자였다. 바울은 열심 유대교인으로 예수를 불신하고

¹³⁸ Ibid.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어 전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전도에 힘쓰며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세워지는데 공로가 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저자 4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남겼으며 그가 남긴 책은 66권 중 최소한 13권이 바울이 쓴 책이다. 그리고 3차에 거친 선교여행은 그의 인생을 걸어온 순례여행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순례자의 영성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전히 자신 삶을 비워냈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은 순교자적 영성도 볼 수 있다.

1. 다소: 벤야민 지파 바리새파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다.
2.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하였다. (행9:1~9).
3.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내고(갈1:17~18) 예루살렘을 거쳐(행9:23~25,

갈1:18~19) 다소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 4. 시리아 안디옥: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행11:25~26).

바울의 1차 선교여행(바울과 바나바)

2년간(AD 47~49), 2,240km를 이동하며 이루어졌고 전도 여행지역은 구부로 섬과 소아시아 지역이다.

1. 다소(Tarsus)와 실루기아(Selucia)를 지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Cyprus)로 이어지며 시작되었다(행13):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함. 유대인 마술사 바에수의 눈을 어둡게 함.

=> 2. 소아시아 밤빌리아 속주의 버가(Perga):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 3. 비시디아의 안디옥(Anrioch of Pisidia):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에게 박해를 받음.

=> 4. 갈라디아 속주 루가오니아 지역의 이고니온(Iconium)과 루스드라(Lystra) 그리고 더베(Derbe):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침.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오해를 받고 돌을 맞는 박해를 받음.

5. 버가 =>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하고 장로를 세움.
=> 버가 => 앳달리아(Attalia) =>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옴.¹³⁹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년간(AD 49~52), 4,500 ~5,600km를 이동한 2차 선교여행은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들어 갔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1.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1차 선교 여행지인 다소와 실루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들러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

=> 2. 트로아(Alexandria Troas): 마게도냐 지역과 서쪽을 향한 복음 전도의 비전을 보게 된다(행16:9).

=> 3. 사모드라게(Samotrache)를 지나 네압볼리(Neapolis)의 본 도시 빌립보(Philippi)에 도착: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와 일가를 복음화 하였다(행16:14~15). 귀신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치므로 감옥에 투옥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석방됨.

=> 4. 테살로니가(Thessalonica):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곤경에 빠짐.

¹³⁹ Ibid.

=> 5. 베뢰아(Beroea):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함.

=> 6. 아텐(행17:15~32): 당대 최고 문화도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함(행17:16~34).

=> 7. 아가야속주의 수도 고린도(Corinthos)(행18:1): 실라, 디모데와 합류하며, 본도 출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도움을 받으며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전도함(행18:1~17). 고린도에서 법정 다툼.

=> 8. 에베소(Ephesus):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헤어짐.

=> 9. 겐그레아: 서원한 바를 위하여 머리를 자름, 수리아로 가는 배를 탔다.

10. 에베소(행18:19~21) => 이사랴 =>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옴.¹⁴⁰

바울의 3차 선교여행

5년(AD 53~58)에 걸쳐 4,500~5,6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한다.

1. 갈라디아와 브르기아(Phrygia)(행18:23): 복음전파. 교회사역.

=> 2. 아시아와 에베소: 두란노 강론.

=> 3.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행20:1~5): 로마로 여행을 준비(행19:21)

=> 4. 드로아(행20:17~38): 강연 중 죽은 유두고를 살림 => 앓소(Assos) =>

기오(Chios) => 사모(Samos) => 밀레도(Miletus)(행20:15): 에베소 장로들과

해후하고 위로 함. => 로도(Rhodes) => 두로(Tyre) => 돌레마이(Ptolemais) =>

가이사랴(Caesarea) => 예루살렘으로 갔다.¹⁴¹

¹⁴⁰ Ibid.

¹⁴¹ Ibid.

바울의 4차 로마 여행

1. 시돈(Sidon): 소아시아 밤빌리아의 무라(Myra)로 가는 배를 탄 후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다.

=> 2. 로도스 => 크레타(Crete)의 살모네(Salmone) => 라세아(Lasea)

=> 3. 뫼닉스(Phoenix): 유아골로 광풍을 만난 뒤 크레타 섬 아래 가우다 섬 근처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계속된 항해 가운데 아드리아 해에서 큰 광풍을 또 만나 표류하다 힘들게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 남부의 멜리데(Malta)섬에 겨우 도착하였다.

4. 시실리아의 시라구사(Syracuse) => 이탈리아 남부 레기온(Rhegium) => 보디올(Puteoli) => 로마(Rome)에 도착했다.¹⁴²

¹⁴² Ibid.

IV. 순례와 영성(spirituality, 靈性)

A. 기독교 영성

현대사회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인은 영성에 대해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해룡은 “영성을 이제 개인의 내면적 체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갱신과 성장의 표현을 넘어, 종교 전반 나아가 사회 문화 운동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¹⁴³고 하였다. 사전적으로 영성(spirituality, 靈性)이란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이며 영성은 인간의 내적인 자원의 총체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 타인 및 상위 존재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며 신체, 영혼, 마음을 통합하는 에너지,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주관하게 하고, 당면한 현실을 초월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성의 개인의 경험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있는 능동적 탐색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각 개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맺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식의 확장’이다. 이것은 현세적 삶과 연계된 영성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수행의

¹⁴³ 유해룡,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성의 연구동향,” *신학과 실천* 47 (2015) 177-206.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영성의 정의, 윤곽, 접근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과 세계* 99 (2020), 322에서 재인용.

필요성과 그 실천 가능성을 예시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데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게 되고 이를 자연계시 또는 창조계시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 꿈, 환상, 이적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고 이러한 계시가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간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는 하나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의 연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는 우리가 성경 속 창세기를 통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야기이며 니케야 신조의 첫 조항은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40) 라고 고백한다.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선하심은 자연을 통해 언제나 비추어 주시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인식하여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오류를 범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

무지하고 죄인인 인간에게 선하시고 참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실재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창조 하였고 창조 시 인간을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인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인간에게 양심은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인 이성, 의지,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종교성,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으며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신비에 의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흔적과 실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인간관계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역동적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세상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역시 상통되어 있다. 우리는 순례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능성이 확보된 것이며 이를 통해 순례의 가치와 목적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¹⁴⁴

일반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말한다(에베소서3:16-20). 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요한일서1:3),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인격적인 친밀하고 온전한 사랑,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 윤리적인 올바른 지식과 통찰 그리고 하나님 신비의 신앙적 체험을 통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게 되는 것이다.

¹⁴⁴ 로마서 1:18-20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에게¹⁴⁵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¹⁴⁶

유진 H. 피터슨(Eugene H. Peterson, 1932-2018)은 영성을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 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영혼은 우리 자신을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영성은 모든 가시성 속에 내재된 비가시성에 쏟는 우리의 관심이며 모든 외적인 부분에 내용을 제공하는 내면에 대한 관심이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무수한 내면성, 침묵, 고독이 수반된다. 극도의 진지함으로 영혼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다. 진정한 영성,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께 그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대면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다. 복음서의 중심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영성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 쏟는 관심이라는 사실이 복음서 전반에 펼쳐진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성을 위한 내용을 제공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며, 바로

¹⁴⁵ 에베소서 3:16-20

¹⁴⁶ 요한일서 1:3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영성은 간결하고 순전하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¹⁴⁷

이 말씀에는 부정적 동사(부정사) 부인과 십자가, 죽음과 “따라오라” 긍정적 동사(명령어) 좇으라고 하신다. 곧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에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 예수님의 초청은 영광스럽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금욕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 또는 번덕이나 야망을 따르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는 아름다움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계시의 신적 확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모습으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수님은 계시의 구체적인 형태이며 빛으로 나타나신다. 그 구체적인 계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온전히 마음을 다해 그분에 집중하며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며 그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영성에서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내 경험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할 위험이 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치료하고, 용서하는 것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

¹⁴⁷ 마가복음 8:34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¹⁴⁸

케네스 보아(Kenneth D. Boa)는 영성을 다양한 면으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관계적 영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고 그 관계적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임무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인간은 자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 이는 자기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변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 영성으로 인간의 한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영원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훈련된 영성으로 역사적, 전통적인 훈련들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배우게 된다. 네 번째는 교화된 삶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죄에서 자유 함을 얻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다섯 번째는 동기화된 영성으로 성경적인 동기는 경외감, 사랑과 감사, 보상, 정체성, 목적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등이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필요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가 동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는 경건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자신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으로 추구할 때 가장 만족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포괄적 영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덟 번째는 과정 영성으로 성경에서는 드러난 현상이나 결과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더 중요한 가치로 본다. 따라서 삶의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홉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으로 영적인 삶의 원동력은 성령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령은 단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다. 열 번째는 전투의 영성으로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이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는 양육의 영성으로 전도와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소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영성으로

¹⁴⁸ <https://www.youtube.com/watch?v=7wVPGdQLiJU>, 기록문화연구소.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 공동체적 영성은 공동체의 필요, 공동체에 대한 도전과 공동체의 창조자들, 교회의 속성과 목적, 영혼 돌보기, 종의 지도력, 책임의식과 갱신 등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¹⁴⁹

케네스 보아(Kenneth D. Boa)가 이야기하는 영성의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께 순종, 십자가 구원의 사랑, 인류의 사랑과 희생, 섬김, 복음전도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적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나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 속의 나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열려 있는 영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영성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고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므로 각자의 영성의 길은 다르다.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좋아하는 것을 하기위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나 대처가 다르듯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와 인격, 가치관을 통해 금전적 봉헌, 삶의 헌신, 교회의 봉사를 통해 다양하게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영성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나만의 표현방식, 색깔이다. 이러한 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 방식을 곱게 다듬어 만들어가는 삶을 영성 생활이라고 한다. 인간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의 존재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 영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¹⁴⁹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역 (서울: 디모테, 2002), 20-24.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복음과 실천* 38 (2006), 338-341에서 재인용.

사랑 안에서 고유한 나의 모습으로 되어갈 때 그 영성이 자라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초자연적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본성이 있다. 이러한 인간에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적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이 실존주의 경향에서 초월적인 신의 세계와 삶의 근원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한 내 자신의 발견이 영적 평안함을 통해 자의식과 연결하며 물질주의를 사회적 평등, 문화적 창조성, 정신적 삶의 질 향상, 환경 조성으로 극복하려는 영성의 사회적 확장으로 나아간다.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자 이기를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이에게 뿌려진 것이 영성이다. 영성은 신앙생활 속에서 꾸준히 닦아 나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보화이다.¹⁵⁰

영성은 무엇보다 삶의 경험이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자기완성을 향한 추구의 경험이며, 일생에 거친 지속적 노력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완성은 우리의 일부로서, 영혼 혹은 내면의 완성이 아니라 몸을 비롯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사회적 영적 차원의 활동이 어우러지는 한 사람의 전존재의 통합적인 완성이다.¹⁵¹ 그리고 기독교적 영성은 우리들에게 궁극자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의 교감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 안에서 성장해가려는 지속적 노력의 경험이다.¹⁵²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제자로서 삶을 향해 노력하고 추구하는 길이며 인생의 순례자적 삶이다. 그리고 영성을 통한 깨달음은 삶의 변화이며 그 변화가 자신의 내적, 외적의 변화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¹⁵⁰ 교회헌장

¹⁵¹ Sandra M. Schneiders, "Theology and Spirituality", 264-265.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49에서 재인용.

¹⁵² Ibid., 267.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50에서 재인용.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적 본성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실재를 통한 초월적 존재로서 성화의 삶으로 완성되어 가는 길이다.

B. 영성의 역사적 흐름

영성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에 대한 역사적 흐름이나 의미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의미와 범위를 상실한 채 사용한다. 영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영성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영성의 대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시대와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부나 신학자들은 기독교 영적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담론을 통해 영성을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영성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고 기독교를 통해 영성의 전통을 이어왔으므로 영성이란 말은 매우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성(靈性, spirituality, spiritualite)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spiritualitas’ 이다. 이 말은 신약 성경 중 바울의 편지들에 나타난 명사 pneuma(영)과 이의 형용사형인 pneumatualitas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 을 의미한다.¹⁵³ 슈나이더스(Sandra M. Schneider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한”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였다.¹⁵⁴ 하나님의 숨결(ruah)로서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pneuma(Spirit)라는 말로 지칭되었으며, 특히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¹⁵³ 유해룡, “영성과 영성신학,” *장신논단* 36 (2009), 305.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신학,” 325에서 재인용.

¹⁵⁴ Sandra M. Schneiders, “Theology and Spirituality,” 257.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신학,” 325에서 재인용.

이해되었다.¹⁵⁵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¹⁵⁶

바울에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아래 있는, 혹은 그 성령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고¹⁵⁷ “영적인” (spiritual)인 것, 혹은 “영성” (Spirituality)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나타나심’, 또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¹⁵⁸

초대교회에서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끄심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영성적 삶으로 이해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영성을 오직 성령의 영향 아래 사는 것으로 보았다면 12세기 들어오면서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위해 철학적 개념을 활용하면서 영성적이란 지성적 인간을 가리키는 말로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7세기 들어오면서 영성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¹⁵⁵ Ibid.,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25에서 재인용.

¹⁵⁶ 고린도전서 2:10-15

¹⁵⁷ Ibid., 258.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26에서 재인용.

¹⁵⁸ Ibid.

이때 당시 “영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내면적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그 중에도 특별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실천을 넘어서는 완전을 향한 탐구들을 지칭하는 말로 용어가 사용되었다.¹⁵⁹ 이 경우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의미했으며, 특별히 그 관계가 개념적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감성을 동반하는 경험적 차원의 관계임을 드러내는 용어였다.¹⁶⁰

이 시기에 지나친 영성 생활에 대한 비판을 피하며 건강하고 전통적인 적절한 용어로 영성 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셸드레이크(Sheldrake)에 의하면

살레의 프란시스(Francis de Sale)나 영국 성공회의 신비가인 윌리엄 로우(William Law) 같은 사람은 ‘헌신’ (devotion)이라는 말을, 웨슬리와 초대 감리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말을 선호했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경건’ (piety)라는 말이 사용되었다.¹⁶¹

이에 가톨릭에서는 영성을 수덕이나 신비와 같은 말로 사용되었으며

신앙생활(수덕의 길)과 신비적 삶(신비의 길)의 관계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를 통칭하여 “영성” 혹은 “영성 신학”이라는 말이 쓰였다.¹⁶²

20세기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영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고 좀 더 보편적인 의미로 제 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¹⁵⁹ Ibid., 259.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28에서 재인용.

¹⁶⁰ Ibid.

¹⁶¹ Ibid., 329에서 재인용.

¹⁶² Ibid., 330에서 재인용.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 공표되어 결론지어졌다.¹⁶³ 슈나이더스는 “영성이라는 용어는 배타적인 카톨릭만의 용어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교 신자들은 오랫동안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열광주의(정적주의)나 신비주의와 연결 되어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면생활에 관해서 말할 때 ‘헌신’, ‘경건’ 그리고 ‘완전’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제 2 바티칸 공의회로 인해 시작된 에큐메니칼한 교류의 상황 속에서 그들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이 말을 포괄적인 내면생활을 가리키는 용어로 새롭게 정의하여 쓰고 있는 가톨릭적 용법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내면생활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하고 그것이 외적인 삶에 가지는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¹⁶⁴

20세기 전반까지는 영성이란 의미가 개인의 종교적 내면의 삶에 중심을 두고 수도 적인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었다면 현대의 영성은 종교적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인간 삶의 전부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교류하고 대화가 되는 용어로 사용되며 살아있는 절대자와의 관계 아래에서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지혜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C. 영성의 정의

앤드류 라우스는 신비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교의신학은 이렇게 파악한 바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용어으로써 구체화하는 것이며,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하여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바이다. 이러한 연결은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특성이다.¹⁶⁵

¹⁶³ Ibid.

¹⁶⁴ Ibid., 331에서 재인용.

¹⁶⁵ 앤드류 라우스,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배성옥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2), 11. 남기정, “영성,

교부시대부터 영성과 신학은 분리되지 않고 신비신학으로 영성에 대한 탐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교부들의 신학은 목회적 관점에서 성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삶과 성례전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신비로 기독교적 실천이 교회 공동체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사는 것으로 영성적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12세기 이후의 특징은 영성과 교의학이 분리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신학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의 영적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저술되었는데 특히 주관적 정감적 경험을 중시하면서 영적인 삶을 토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 기도와 묵상에 대한 훈련이 체계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17세기에는 “영성”, “영성신학”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슈나이더스에 따르면 “영성신학”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진보를 보인 사람들이 살았던 영적 삶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영성신학은 두 개의 하부분과, 즉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덕신학”은 활동적 실천에서부터 수동적 신비 경험이 시작될 때까지의 완전의 삶을 다루었다. “신비신학”은 수동적 신비 경험의 시작에서부터 이것의 최고 정점인 연합에 이르기까지를 다루었다. 그리고 영성신학은 교리에 바탕을 두고, 그 교리의 진리를 실천으로 구현하는 것을 가이드 하는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⁶⁶

피에르 푸라(Pierre Pourrat, 1871-1957)는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그에 이르는 길을 다루는 신학의 일부이다. 교의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윤리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영성학, 영성 신학,” 335에서 재인용.

¹⁶⁶ Ibid., 339-340에서 재인용.

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이 두 신학의 바탕 위에, 영성 혹은 영성신학이 온다. 그리고 이것은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나뉜다.”¹⁶⁷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의 관계를 연속적인 성숙의 과정으로 통합된 영성신학으로 보는 지 아니면 구별되어 불연속적이라고 보는 지의 논쟁이 계속된다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로 초대받고 있으며, 따라서 영적 성숙의 과정은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인 것으로 공표하였다.¹⁶⁸ 그러므로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을 향한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 시기에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에 맞추는 경향과 수덕적인 삶과 신비적인 삶의 구분은 영성의 범위를 축소시키기도 하였고 영성이 성직자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세기로 들어오면서 1차, 2차 세계 대전의 전쟁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겪고 기술의 발달과 지식의 과부하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인간 실존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인간이해의 확장과 신앙적 삶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슈나이더스는 “영성은 몸, 사회, 정치 혹은 세속의 삶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내면의 삶”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성은 인간적 삶과 경험의 모든 양상을 아우르는 것과 관계된 어떤 것이다.”¹⁶⁹

웰드레이크는 신앙적인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는 사람들의 개별적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신학적

¹⁶⁷ Pierre Pourrat, *Christian Spirituality*, 1:V. Sandra M. Schneiders, "Theology and Spirituality," 262.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41에서 재인용.

¹⁶⁸ Sheldrake, *Spirituality and History*, 54-55.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43에서 재인용.

¹⁶⁹ Sandra M. Schneiders, "Theology and Spirituality,"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47에서 재인용.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¹⁷⁰ 여기서, 영성이 다름 아닌 신앙적 삶의 경험이라고 할 때, 영성은 문화의 차이나, 상황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역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⁷¹ “삶의 다른 종류에 관한 것이 아니며, 깊은 차원의 인간적 삶의 전체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시의 전통에 의해 독특하게 부과된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 영성은 단지 기도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신앙 공동체의 정황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통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⁷²

한 사람의 인생의 순례 길에서 다양한 영적 경험은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영적 경험의 다양성은 하나님과 다양한 영적관계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영성신학에서 벗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발견하는 시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영성 탐구에 대해 영성은 인간적인 경험과 종교적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며 인간적 관계 속에서 이타적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거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인적이며 통전적이고 포용적이며 대화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성은 신학적이지만 교의적이지 않고 규범적이지도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간다. 이러한 영성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성의 경험을 토대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여정의 시작인 것이다.

¹⁷⁰ Ibid., 345에서 재인용.

¹⁷¹ Ibid., 345에서 재인용.

¹⁷² Sheldrake, *Spirituality and History*, 60-61.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347에서 재인용.

D. 영성의 단초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젊어 지고 건장해지지만 중년기를 지나면서 육체는 노쇠해지고 몸이 늙어간다. 그러나 정신세계는 중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지고 사고의 범위는 넓어지고 깊어져 가며 죽음 앞두고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나와 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는 사유의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존의 갈등과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간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 속에서 겪는 자연과 사람들과 만남의 무대 안에서 순례의 파노라마를 걷고 있는 것이다. 순례의 파노라마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단초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 하나님과 조우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인간의 삶이 곤궁의 상황으로 휘몰아 칠 때

인간이 직면하는 곤궁상황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이러한 곤궁상황을 만남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인간이 직면하는 곤궁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¹⁷³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¹⁷⁴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생각들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

¹⁷³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신학과 목회* 46 (2016), 145.

¹⁷⁴ William James,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 김성민, 정지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66.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45에서 재인용.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겪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시간이 영적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초이다.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을 양보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기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초적 본능으로 가지는 불안이 있다.

불안은 원죄의식과 관련이 있어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정서로 이해할 수 있다.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파생되는 이웃과의 분리요, 세계와의 분리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의 분열이요 결국은 영과 몸의 분리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¹⁷⁵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는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리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이 분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개개인 생명 간에 있는 분리이고 둘째, 자기로부터 분리이다. 셋째로는 ‘존재의 근원’ 으로부터 인간전체의 분리이다. 이 삼중의 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분리를 구성한다.”¹⁷⁶

인간의 원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몰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분리로 찾아오는 생명 존재의 불안감과 죽음으로부터 밀려오는 불안감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기 존재로부터 분리이며 이로부터 인간은 인생의 삶 여정 속에서 갈등과 대립관계로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며 불안한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¹⁷⁵ Ibid., 145.

¹⁷⁶ Paul Tillich,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8), 154.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46에서 재인용.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¹⁷⁷

사도 바울도 사망의 몸에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실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은 "기독교 신앙에는 불안이 하나님에게 유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신의 공동체로 인도한다."¹⁷⁸ 고 했다.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삶에 있어 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므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심어주며 인생의 순례 여정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끈다.

E. 하나님 체험과 믿음

좋은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의 근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¹⁷⁹

성경적 인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에 대한 경험을 하고

¹⁷⁷ 로마서 7:19-24

¹⁷⁸ Jürgen Moltmann, *하나님 체험*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47.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46에서 재인용.

¹⁷⁹ Ibid., 147.

본토 친척을 떠난다. (창세기12:1-5) 그리고 모세는 호렘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지도자가 되었으며(출애굽기3:1-5)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경험을 함으로 더욱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사무엘상17:41-51)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천사의 현몽을 하고 예수를 출산하였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¹⁸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¹⁸¹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¹⁸²

¹⁸⁰ 창세기 12:1-2

¹⁸¹ 출애굽기 3:1-5

¹⁸² 사무엘 상 17:48-51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체험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오감에 영감을 더하여 인간의 사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며 그 앎이 더욱 더 깊어지며 삶에 있어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체험을 통한 앎과 믿음에 대해 초대교부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credo, ut intelligam)이라고 했다. 믿음이 앎을 선행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하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체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믿음과 체험은 서로를 강화시켜 가는데 믿는 사람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¹⁸³

이러하듯 하나님의 대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체험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육화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말하고 있다. 특히 성경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살아서 참여하시며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며 인도하시는 것을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 가운데 대화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¹⁸³ Karl Rahner, *Spiritual Exercise*, trans., Kenneth Baker (New York: Herder, 1965), 249.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48에서 재인용.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삶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그곳에서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연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을 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¹⁸⁴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과 만남은 성경을 통해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오신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자연을 보고 사유를 하며 느낄 때 깊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깊은 만남을 갈망할 때 더욱 더 삶의 대한 감사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F. 영성훈련 (말씀, 기도, 삶)

¹⁸⁴ 시편 104:1-5

영성훈련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말씀(묵상)과 기도 그리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가장 온전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 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¹⁸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또렷이 알아 갈수록, 불평과 하소연뿐이었던 욕의 기도는 차츰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이처럼 욕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진 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해질수록 기도는 더 풍성해졌으며 변화의 폭이 인생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무지의 심연과 침묵이 지배하는 초의식상태에 빠져 드는 행위가 아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쪽이다.’¹⁸⁶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간구를 들으실 분에 관해 배워야 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바다, 즉 성경에 풍덩 뛰어들어야 한다. 기도의 목표가 진실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본다면,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신다. 미리 뜻하신 이들의 마음에 이미 뜻하신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말씀 없이는 결코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고하기를 멈춰선 안되지만 그 말과 생각은 하늘나라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⁷

먼저 말씀은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며(요한복음 1: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30). 따라서 노은석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¹⁸⁸고 하였다.

¹⁸⁵ 팀 켈러, *팀 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77.

¹⁸⁶ Ibid., 83.

¹⁸⁷ Ibid., 87-91.

¹⁸⁸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복음과 실천* 38, (2006), 35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¹⁸⁹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¹⁹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묵상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나용희는 “묵상이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는 것으로 동양의 명상과는 구분된다. 동양의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에 비해 기독교의 묵상은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¹⁹¹고 하였다. 여기서 채움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며 기도와 예배와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묵상이 주는 유익을 노은석은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¹⁹²고 하였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와 불신앙,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과 즐거움, 자신의 교만 등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¹⁸⁹ 요한복음 1:1

¹⁹⁰ 요한복음 5:30

¹⁹¹ 나용희, *영성파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26.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53에서 재인용.

¹⁹²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54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과 싸우는 시간이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¹⁹³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성적 삶의 현장은 우리들의 삶 전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던지 Paul Stevens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노동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고 내면에 숨어 있는 영성인 것이다.”¹⁹⁴고 하였으며 임성빈은 “인간의 노동도 이 땅에서 생존이나 욕구충족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¹⁹⁵고 하였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¹⁹⁶

¹⁹³ 로마서 8:26-27

¹⁹⁴ R.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박영민 역 (서울: IVP, 1996), 25.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59에서 재인용.

¹⁹⁵ 오성춘,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316.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59에서 재인용.

¹⁹⁶ 골로새서 622-24

영성 훈련과 함께 하는 순례여행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나아가게 하는 길이며 순례여행의 여정동안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으며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이웃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G.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훈련 - 세 번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40일간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하였고 마귀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겪어야 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으로 마태복은 4장 3-4절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 1932-1996)은 이 시험을 상황 부합의 시험이라 부르고 있다. 즉 이 시험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일, 필요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시험이다.¹⁹⁷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받는 상황은 40일을

¹⁹⁷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2.

주리셨으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¹⁹⁸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¹⁹⁹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나 업적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낮아지는 길로 기꺼이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상황에 부합하라는 요구를 항시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업적, 효율성 및 생산성은 우선 마음이 주님께 고정된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은 상황에 적합한 행위를 경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²⁰⁰

¹⁹⁸ 마태복음 4:2-4

¹⁹⁹ 신명기 8:3

²⁰⁰ Henri J. M.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 역 (서울: IVP, 2003), 41-42.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4-345에서 재인용.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은 4장 5-7절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 시험을 이목집중의 시험이라 부르고 있다. 하나님 외의 다른 곳에서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험이다.²⁰¹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서 착지를 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유명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유명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충분함을 알고 그 사랑에 만족하신 것이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²⁰²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²⁰³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인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녀로 인정해 주심에 만족하며 그 어떠한 순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중심으로 곧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해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는 세미한 목소리를 발견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²⁰¹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5-346.

²⁰² 마태복음 4:5-7

²⁰³ 하박국 3:17-18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무제한적이고 무한정적으로 받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미 충분하고 아주 완전하고 매우 포괄적인 용납이라서, 남의 눈에 띄고 칭찬을 듣고 감탄을 얻고자 하는 강박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섬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준다.”²⁰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10절로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이다. 헨리 나우웬은 이 시험을 권력확보의 시험이라 하였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가 인간들로 하여금 아무런 부끄럼 없이 권력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²⁰⁵ 세상 천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 주권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우신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²⁰⁶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²⁰⁷

세상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권력이 있어야 궁극적인 하나님 일에 힘이 되어 도울 수 있다는 오류를 가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운영하시고

²⁰⁴ Henri J. M.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 역 (서울: IVP, 2003), 41-42.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6-347에서 재인용.

²⁰⁵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7.

²⁰⁶ 마태복음 4:8-10

²⁰⁷ 빌립보서 3:7-8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작은 권력과 능력을 세우기보다 온전히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다.²⁰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²⁰⁹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²¹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통해 일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께 굴복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²¹¹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성의 깊은 내면 안에서 성령과 하나님과의 일치의 영적 힘을 통한 말씀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움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이다. 우리 자신도 무장 해제되어 있는 인간의 무력함으로 깨어진 연약한 존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신다. 순례는

²⁰⁸ Jean-Pierre de Caussade, *자기포기*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2), 101-102.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7에서 재인용.

²⁰⁹ 전광, *성경이 만든 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56.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8에서 재인용.

²¹⁰ 최정훈,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이해,” *교육교회* 316, (2003), 9.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8에서 재인용.

²¹¹ Tommy Tenney,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78-82.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348에서 재인용.

광야를 걷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겪는 시험의 과정처럼 우리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²¹²

H. 순례여행에서 예배와 묵상의 시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질문 속에서 살고 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나의 존재 그리고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 죽음, 영혼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인간을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문들을 인간은 사유와 경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기를 반복한다.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철학적, 종교적 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종교는 다른 영역과 달리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전승해 오면서 해석하고 지평을 넓혀왔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태어나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리움이 더욱 더 신에 대한 간절한 갈망으로 변하고 공동체를 통해 종교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가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향한 다양한 종교적 행위는 인간 창조의 신비에 의한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본능적 행위이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을 세계를 보다 나은

²¹² 마태복음 11:28-30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행위로 종교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종교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덕적 행위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양심적인 마음도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인간은 윤리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의 초월성으로 볼 수 있는데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본성적인 작용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 주체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초자연적으로 어느 것에 치우침이 없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상호 작용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인간은 창조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간의 주체로서 인류 역사에 참여하고 인간의 신적인 내재를 통해 하나님이 관여하시며 주관하신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간답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반성적인 자기-의식이며 세상에서 하나님 신비가 유한한 인간의 경험에 제한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하게 되며 하나님으로 향한 인간의 역동적인 신앙적 믿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순례여행을 하면서 자연을 접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영성적 방법으로 예배와 묵상과 실천을 들 수 있다. 먼저 여행 일정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는 예배로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마음을 열고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영성적 이루어야 할 목표를 가진 뒤에 함께 할 공동체 멤버들과 필요한 일정과 규칙을 나누어 본다. 순례여행의 여정 속에서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묵상은 생명 묵상, 사명 묵상, 계명 묵상, 새 계명 묵상이 있다.

첫 번째 생명 묵상이다.²¹³

²¹³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신학과 목회* 46, (2016), 160.

처음 만났을 때 각자 자신의 이름과 생일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했던 가족, 친구, 주변 지인들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이며 얼마나 나의 삶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예) 건강, 시간, 사람 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두 번째는 사명 묵상이다.²¹⁴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자신이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고 보내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성경 속에서 부름 받고 떠난 신앙의 조상들은 어떻게 순종하였는지 묵상해 본다.

-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²¹⁵

-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²¹⁴ Ibid., 161.

²¹⁵ 창세기 12:1

광야에 이르니라²¹⁶

- 그리스도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²¹⁷

나는 어떠한 부름에 대한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나의 사명 선언문’ 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세 번째는 계명 묵상이다.²¹⁸

자신의 성장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집안의 가훈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이 내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 묵상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본다.

- 하나님의 첫 명령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²¹⁹

²¹⁶ 출애굽기 19:1

²¹⁷ 베드로전서 2:9

²¹⁸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62.

²¹⁹ 창세기 2:16-17

- 하나님의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²²⁰

제사장 국가로 세워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며 계명과 율법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묵상해 본다.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네 번째는 새 계명 묵상이다.²²¹

²²⁰ 출애굽기 20:3-17

²²¹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62.

여행을 하면서 보고 즐겼던 자연과 문화와 문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삶과 문명의 흔적에 대해 생각해 본다.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그리고 계명 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되었던 삶을 살았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변하기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그리고 계명의 삶에서 새 계명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성경 속의 인물은 찾아본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²²²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²²³

두 번째 “사명의 묵상” 을 하면서 작성한 ‘나의 사명 선언문’ 을 보고 새 계명의 시각에서의 나의 사명을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에 대해 작성하고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에 대한 시간계획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나의 사명 선언문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순례여행을 하는 동안 매일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날의 느꼈던 이야기 중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²²² 요한복음 13:34

²²³ 에베소서 2:13-15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며 묵상하고 계획한 것들을 정리한다. 그 동안 생각하고 준비하며 계획한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살아 숨 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예배의 예전 구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순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성적 순례여행은 영성 훈련과 함께 영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권용근은 “영적 성장의 평생의 과제로 영성적 활동은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관상적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자신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을 가지는 것이다.”²²⁴ 고 하였다.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영성 훈련의 과정이며 그 속에서 생명과 사명, 계명과 새 계명을 배우고 지키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순례여행의 목표는 성령이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영성적 여행이 되어야 한다. 영성적 여행은 인생에서 인간의 삶이면서 주관적이고 동시에 객관적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분과 만남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²²⁴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164.

V. 순례사례 연구

- A. 아펜젤러 순례여행
- B.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순례여행
- C. 종교 개혁 순례여행
- D. 메콩강 순례여행

A. 아펜젤러 순례여행 (미동부 탐방 8박 11일)

한국선교 역사에서 최초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부활절인 4월 5일에 그의 아내 엘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스크랜턴 모자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아펜젤러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손더튼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의 프랭클린 마샬대학을 거쳐 뉴저지 매디슨 드루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하였다. 그의 선교 사상은 보수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며 이러한 사상은 가정환경과 학교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아버지는 스위스에서 이민을 와서 루터교의 신앙을 가졌고, 어머니는 독일 계통 메노나이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독일의 개혁교회에 있는 경건주의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주일 오후에 어김없이 독일어로 된 루터의 성경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펜젤러는 감리교회였던 랭카스터 프랭클린 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여기서 그는 기도모임과 속회모임을 가지면서 감리교와 친숙하게 됐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당시 부흥운동의 물결이 뜨거웠던 감리교회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매력을 느끼게 되며 아버지의 만류에도 감리교회를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²²⁵ 그리고 그는 드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북 감리교 선교사로 조선으로 오게 된 것이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2.6. ~1902.6.11.)는 조선에서 배재학당을 세우고 정동제일교회의 모태인 뵤엘 예배당을 개척하며 성서신약전서를 번역하였다. 그 뿐 아니라 근 현대 출판의 산실인 삼문출판사를 통해 출판사업과 장학사업을 하였고 청년 계몽 근대화 운동을 하였으며 순회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열정을 쏟아냈다.²²⁶

한국선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미국 동부를 찾아가는 영성 순례여행이다. 먼저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해서 캐나다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에서 영성 순례를 시작한다. 아펜젤러가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리교회를 선택하게 된 펜실베니아 랭게스터를 거쳐 미국의 정치와 역사의 중심지인 워싱턴에서 미국인들이 세계 제일의 국가로 성장해온 배경을 찾아보고 미국 제일의 도시인 뉴욕에 있는 드루대학을 방문해서 아펜젤러가 선교적 신앙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공부를 하던 발자취를 찾아본다. 뉴욕의 역사, 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하고 건설한 미국을 움직이는 근원적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이러한 미국 동부여행은 조선을 선교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을 되새기는 여행이기도 하지만

²²⁵ 소요한, *한국 근대 교육의 개척자*, 아펜젤러 (성남: 북코리아, 2016), 99-102. 참고

²²⁶ Ibid., 참고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근원적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를 사유하는 순례여행이기도 하다.

일 자	장 소	주 요 일 정	식 사
6/22 제 1일 월	인 천 토 론토 나이아 가 라	AM07:00 인천공항 제2청사 미팅 KE073 편 09:35 인천출발 09:45 토론토 도착 [비행시간 - 13:10분 소요] 입국심사 및 가이드 미팅 후 중식 토론토 구/신 시 청사, 토론토 대학 관광 후 나이아가라로 이동(1시간 30분 소요) 테이블락, 시닉터널, 월폴, 아담백경 수력발전소, 꽃 시계 관광 후 석식 및 호텔 투숙 호텔: Travel Lodge 또는 동급	중:현지 식 석:감자 탕
6/23 제 2일 화	나이아 가 라 해리스 버그	호텔 조식 후 간단한 나이아가라 시내 관광 후 미국 국경통과 후 해리스버그로 이동(5시간 30분 소요) 및 석식 후 호텔 투숙 농장쇼핑 후 미국 국경통과 후 해리스버그로 이동(5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 식 중:한 식 석:히바 찌 뷔페

		호텔: Sleep Inn & Suite 또는 동급	
6/24 제 3일 수	해리스 버그 게티스 버그 랭게스 터 해리스 버그	<p>호텔 조식 후 남북전쟁의 최대 격전지이자 링컨의 명연설장소인 필드, 올드타운, 스트로 브릿지 성지, 게티스버그 연합 감리교회 관광</p> <p>랭게스터로 이동(1시간 30분 소요) 제일 연합감리교회 방문</p> <p>(아펜젤러가 감리교로 개종한 곳!), 아펜젤러가 졸업한 프랭클린 앤 마살대학 방문 후</p> <p>디킨슨 대학으로 이동(1시간 20분 소요)-가우처</p> <p>매클레이 졸업한 대학- 및 방문</p> <p>랭게스터 뮤지컬관람 (성경주제)</p> <p>해리스버그로 이동(1시간 소요) 및 석식 후 호텔 투숙</p> <p>호텔: Sleep Inn & Suite 또는 동급</p>	<p>조:호텔 식</p> <p>중:현지 식</p> <p>석:히바 찌 뷔페</p>
6/25 제 4일 목	해리스 버그 워싱턴 메릴랜드	<p>호텔 조식 후 워싱턴으로 이동(2시간 소요) 오전 예배일정 진행</p> <p>국회의사당,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 링컨/한국전쟁기념관 관광 후 중식</p> <p>볼티모어로 이동(40분 소요),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방문 후 엘리콧시티로 이동(40분 소요)</p>	<p>조:호텔 식</p> <p>중:중식 뷔페</p> <p>석:중화 요리</p>

		<p>석식 후 호텔투숙</p> <p>호텔: Holiday inn 또는 동급</p>	<p>짜장/짬뽕</p>
6/26 제 5일 금	<p>메틸랜 드</p> <p>필라델피아</p> <p>수더튼</p> <p>뉴저지</p>	<p>호텔 조식 후 필라델피아로 이동(3시간 소요)</p> <p>자유의 종, 인디펜던스 홀, 영화 로키의 주 배경이된</p> <p>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 및 외관</p> <p>관광 및 중식 후 수더튼으로 이동(1시간 소요)</p> <p>임마누엘 라이디 교회, 아펜젤러 생가 방문 후</p> <p>뉴저지로 이동(1시간 소요)</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호텔: NEWARKE WYNDHAM GARDEN 또는 동급</p>	<p>조:불포함</p> <p>중:현지식</p> <p>석:</p> <p>그랜드 뷔페</p>
6/27 제 6일 토	<p>뉴저지</p>	<p>맨해튼으로 출발 관광시작</p> <p>관광지역: pier17 자유여신상 유람선, 원월드 전망대, 59가 센트럴파크 도보관광</p> <p>경유지역: 월가, 유엔본부, 락펠러센터, 타임스퀘어</p> <p>월가의 상징-황소동상, 월 스트리트 워킹투어</p> <p>영화 “박물관은 살아있다” 의 주 배경이 된 10만평 세계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p> <p>(마야/아즈텍 문명, 살아있는 사파리 왁스뮤지엄, 우주의 신비...)관람</p>	<p>조:호텔식</p> <p>중:한식</p> <p>석:한식</p>

		(도네이션\$2-개별지불)센트럴파크 도보관광 후 석식 및 호텔투숙 선택관광: 뉴욕야경\$40/p 뮤지컬 오케스트라석(맘미아 또는 오페라유령)주중\$150~, 주말\$200~ 호텔: NEWARKE WYNDHAM GARDEN 또는 동급	
6/28 제 7일 일	뉴저지	호텔 조식 후 뉴저지 메디슨에 위치한 드루신학교 로 이동(1시간 소요) 예배 및 자체일정 진행 (차량/가이드/중&석식 NO SVC) 호텔: NEWARKE WYNDHAM GARDEN 또는 동급	조:호텔 식 중:불포 합 석:불포 합
6/29 제 8일 월	뉴저지 프린스 턴대 우드베 리 뉴저지	호텔 조식 후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동(40분 소요) 및 전문 가이드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 후 미동부 최대 쇼핑 아울렛몰 “우드베리로 이동(1시간 소요) 자유 쇼핑 및 자유식(\$15-개별지불) 후 호텔로 이동 중 석식 호텔: NEWARKE WYNDHAM GARDEN 또는 동급	

6/30 제 9일 화	인 천 뉴 욕 맨하탄 뉴저지	<p>브르클린 돔보지역으로 이동</p> <p>돔보란? (Down Under The Manhattan Bridge OverPassing)의 약자이다!</p> <p>브르클린 다리아래에서 뉴욕만의 아름다운 전경과 18세기의 정취가 묻어나는 올드 빌딩숲속에 아이디어로 살아나는 카페촌, 그리고 유재석의 무한도전으로 더욱 더</p> <p>유명해진 맨하탄 브릿지 아래의 아름다운 전경을 1시간의 자유 도보관광으로 즐긴다!</p> <p>맨하탄으로 이동 및 유니온 신학대 방문 후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p>	<p>중: 쉐쉐</p> <p>버거</p> <p>특식</p> <p>석: 매운</p> <p>돼지</p> <p>갈비찜</p> <p>특식</p>
7/01 제 10일 수	뉴저지	<p>KE086편 00:50 뉴욕 출발 [비행시간 14:20분 소요]</p> <p>기내박</p>	
7/02 제 11일 목	인 천	<p>04:10 인천도착 후 해산</p> <p>**수고 많으셨습니다.</p>	

B.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순례여행 (15일)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다. 이곳은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순례여행을 통한 구원사역의 활동무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정착을 하며 살아온 역사적 장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다양한 신앙적 체험과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역사적 사실을 몸소 느끼며 더욱 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가깝게 느끼는 시간을 가진다. 사도 바울의 역사적 선교 현장과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온 초대교회의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선교의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며 그 시대 문화와 그들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된다. 또한 사막의 페트라 유적지와 아름다운 지중해의 풍경과 그리스의 문화, 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체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영성적 순례여행이 되어야 한다.

DATE	PLACE	VIA	TIME	ITINERARY	MEAL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제01일	인 천	KE 957	14:35	인천 출발, 텔아비브 향발	기내식

11/30 토	텔아비브 예루살렘	전용 차량	19:55	텔아비브 도착 예루살렘으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예상호텔: GRAND COURT 혹은 동급	
제02일 12/01 일	예루살렘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다는 올리브 산, 전세계에서 모아진 헌금으로 세워진 겿세마네 대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붕괴를 예언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눈물기념성당, 감람산 정상에 있는 예수승천기념 성당,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성당, 겿세마네동산 건너편 유대인들의 무수한	호텔식 현지식 호텔식

			<p>무덤들이 잇는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 성모님이 태어난 곳으로 성모님의 어머니 안나를 기념 하여 세운 성 안나 기념성당,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밧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 Via Dolorosa 14처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묻힌 동굴 위에 세워진 예수님 무덤성당,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믿어지는 다윗왕의 가묘,</p>
--	--	--	--

				<p>베드로 통곡교회, 통곡의 벽 등 순례 후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GRAND COURT 혹은 동급</p>	
<p>제03일 12/02 월</p>	<p>예루살렘 베들레헴 에인카렘 예 리 고</p>	<p>전용 차량</p>	<p>전 일</p>	<p>호텔 조식 후 베들레헴으로 이동 (약 30분 소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세워진 아기에수기념성당, 에인카렘으로 이동 세례자 요한 탄생기념성당, 성모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기념 성당 등 순례 후 예리고로 이동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무화과 나무, 엘리사가 독소가 있는 샘물에 소금을 던져 물의 근원을 깨끗케한 엘리사 샘물,</p>	<p>호텔식 현지식 호텔식</p>

				<p>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받은 시험산 조망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JERIGO RESORT</p> <p>혹은 동급</p>	
<p>제04일</p> <p>12/03</p> <p>화</p>	<p>예 리 고</p> <p>알 렌 비</p> <p>페 트 라</p>	<p>전용</p> <p>차량</p>	<p>전 일</p>	<p>호텔 조식 후</p> <p>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알렌비를 경유하여 페트라로 이동</p> <p>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p> <p>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로 등</p> <p>순례 후</p> <p>모세가 이곳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전해지는</p> <p>와디무사(모세의 샘) 등</p> <p>순례 후</p>	<p>호텔식</p> <p>현지식</p> <p>호텔식</p>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KING' S WAY HOTEL 혹은 동급	
제05일 12/04 수	페 트 라 마케루스 느 보 산 암 만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모세의 우물, 아르논골짜기, 마케루스, 메스마의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 , 느보산에서 모세기념교회, 눛뱌상 순례 및 가나안 조망 베타니아(요르단 강 예수님 세레터) 등 순례 후 암만으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AMMAN CHAM PALACE 혹은 동급	호텔식 현지식 호텔식
제06일 12/05 목	암 만 사 해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해수면보다 400M 아래 위치한 사해로 이동	호텔식 한 식 (도시 락) 호텔식

	가이사리아 갈릴리			이천년전의 사해 구약 사본이 발견된 콤란, 사해 수영 (부영 체험) 후 가이사리아빌립보 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지중해변의 로마시대의 수로 등 유적지 순례 후 갈릴리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EIN GEV HOLIDAY RESORT 혹은 동급	
제07일 12/06 금	갈릴리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신 갈릴래아 호수 나룻배 체험,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낫게한 기적을 일으킨 가버나움,	호텔식 현지식 호텔식

				<p>예수 부활 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을 물으신 베드로수위권교성당,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빵과 물고기 기념성당, 산상 설교를 하신 산상 수훈 성당 등 순례 후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EIN GEV HOLIDAY RESORT 혹은 동급</p>	
<p>제08일 12/07 토</p>	<p>갈릴리 타볼산 가나 나사렛</p>	<p>전용 차량</p>	<p>전일</p>	<p>호텔 조식 후 타볼산으로 이동 주님 변모성당 순례 후 가나로 이동 (약 40분 소요) 지하에 옛 포도주 항아리가 보존되어 있는 가나 혼인 잔치 기념 성당, 나사렛으로 이동 (약 30분</p>	<p>호텔식 현지식 기내식</p>

	텔아비브			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탄생을 예고한 곳에 16:30 19:50 세운	
	아 테 네	AZ 822	22:05	성모 영보 대성당, 요셉성인이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는 장소에 세운 요셉 기념 성당 등 순례 후 텔아비브로 이동 공항으로 이동 텔아비브 출발, 아테네 향발 아테네 도착 호텔 투숙 및 휴식 예상호텔: BW HOTEL FENIX 혹은 동급	
제09일 12/08 일	아 테 네 고 린 도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고린도로 이동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한, 고린도 유적지 (비마터,	호텔식 현지식 한 식

	아 테 네		<p>아고라, 극장터),</p> <p>고린도 박물관, 고린도 사도 바울 기념성당 등 순례 후</p> <p>아테네로 귀환하여</p> <p>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인 디오니소스 극장, 6개의 소녀상과</p> <p>아크로폴리스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에렉티온 신전, 사도 바울의 순례지</p> <p>아레오빠고 언덕,</p> <p>그리스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전</p> <p>간혀 있었던 소크라테스 감옥 등 순례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BW HOTEL</p>
--	-------	--	--

				FENIX 혹은 동급	
제10일 12/09 월	아 테 네	전용 차량	08:00	호텔 조식 후	호텔식
	이즈미르	PC 806	10:00 13:05 13:55	공항으로 이동 아테네 출발, 이즈미르 항발 이즈미르 도착	현지식 호텔식
	쿠사다시	전용 차량		소아시아 7대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순례 후 쿠사다시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PINE MARINA HOTEL 혹은 동급	

제11일 12/10 화	쿠사다시	전용	전 일	호텔 조식 후	호텔식
	에 페 소	차량		에페소로 이동 사도요한 교회 및 무덤, 옛 에페소 유적지 등	현지식 호텔식
	라오디케이아			순례 후 라오디케이아로 이동 묵시록의 일곱교회중 초대교회인 라오디케이아 순례	
	파묵갈레				

				<p>과목갈레로 이동</p> <p>호텔 온천 욕 (수영복 지참 호텔 내 온천 수영장)</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COLOSSAE SPA & THERMAL 혹은 동급</p>	
<p>제12일</p> <p>12/11</p> <p>수</p>	<p>과목갈레</p> <p>카파도키아</p> <p>카이세리</p> <p>이스탄불</p>	<p>전용 차량</p> <p>TK 2021</p> <p>전용 버스</p>	<p>전 일</p> <p>16:30</p> <p>19:30</p> <p>21:10</p>	<p>안티오키아로 이동</p> <p>비시디아 안티오키아 유적지 등 순례 후</p> <p>카파도키아로 이동</p> <p>초기기독교인이 유대인들과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p> <p>생활하던 초대암굴교회, 기도처, 신학교터 등 순례 후</p> <p>카이세리로 이동</p> <p>공항으로 이동하여 카이세리 출발, 이스탄불 향발</p> <p>이스탄불 도착</p> <p>호텔 투숙 및 휴식</p>	<p>호텔식 현지식 매 식</p>

				<p>예상호텔: GOLDEN WAY</p> <p>흑은 등급</p>	
<p>제13일</p> <p>12/12</p> <p>목</p>	이스탄불	<p>전용</p> <p>차량</p>	전 일	<p>호텔 조식 후</p> <p>보스포러스 유람선</p> <p>(전세선) 탑승</p> <p>가장 화려한 이슬람 사원</p> <p>블루모스크,</p> <p>서기 537년에 축성된 세계</p> <p>5대성당 성소피아 성당</p> <p>등 순례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GOLDEN WAY</p> <p>흑은 등급</p>	<p>호텔식</p> <p>현지식</p> <p>한 식</p>
<p>제14일</p> <p>12/13</p> <p>금</p>	이스탄불	<p>전용</p> <p>차량</p> <p>KE 956</p>	<p>전 일</p> <p>18:30</p> <p>21:45</p>	<p>호텔 조식 후</p> <p>블루 모스크, 예수님의</p> <p>생애가 그려져있는</p> <p>코라성당,</p> <p>툽카프 궁전 “보석관” ,</p> <p>5,000여개의 상점 그랜드</p> <p>바자르,</p> <p>로마시대의</p> <p>전차경기장이었던</p>	<p>호텔식</p> <p>현지식</p> <p>한 식</p>

				히포드림, 오벨리스크 등 순례 후 공항으로 이동 이스탄불 출발, 인천 향발	
제15일 12/14 토	인 천		13:55	인천 도착 공항 도착 후 해산	기내식

C. 종교 개혁 순례여행 (서유럽 5개국 12일)

독일 출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교리의 문제들을 제기하여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운동을 함으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였고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대중화시켰다. 그리고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창설한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혁자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정리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함으로써 복음주의 적인 프로테스탄트를 확립하였다. 마틴 루터의 의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장 칼뱅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더해져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되었다. 또한 영국의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이며 성공회 신부로 성공회의 개혁을 위한 경건운동을 시작하였고 사회 운동가이며 설교자였다. 존 웨슬리 신학에서 방법론으로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는

평생 4만 2천회의 설교를 하였고 선교와 설교를 위해 매년 12.800km와 평생 40만km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체코의 종교 개혁자인 얀 후스는 가톨릭 사제로 성서를 체코어로 번역하였으며 유일한 권위로 강조하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의 세속화에 비판하고 저항하였다.²²⁷ 앞에서 서술한 종교 개혁자의 발자취를 따라 영국에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를 여행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할 문제들을 고민해본다. 그리고 유럽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 종교 개혁의 변화를 통해 더욱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깝게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유럽 기독교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들을 접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유럽 문화가 지금까지 다각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에 대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의 장단점을 찾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보는 영성적 순례여행이 되어야 한다.

DATE	PLACE	VIA	TIME	ITINERARY	MEAL
일자	장소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제01일	인 천 프랑크푸르트	LH 0713	14:30 18:50	인천 출발, 프랑크푸르트 향발	기내식

²²⁷ 네이버 naver.com 지식백과 참조

	런 던	LH 0922 전용 차량	21:30 22:10	프랑크푸르트 도착 프랑크푸르트 출발, 런던 항발 런던 도착 호텔 투숙 및 휴식 예상호텔: HESTON HYDE 혹은 동급	
제02일	런 던 브리스틀 런 던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브리스틀로 이동 (약2시간 30분 소요) 최초의 감리교 교회가 있는 존 웨슬리 채플, 찬송가 작사자이자 존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집, 런던으로 귀환 웨슬리 기념교회, 올더스게이트 거리 등 순례 후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HESTON HYDE 혹은 동급	호텔식 현지식 한 식
제03일	런 던	전용	전 일	호텔 조식 후	호텔식

	파 리	차량 E/STAR 전용 차량	17:31 20:47	<p>성경과 관련한 고대근동의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해주는 유물들이 소장된 대영박물관, 근위병 교대식으로 유명한 버킹검 궁전(외관), 런던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 빅벤, 타워브릿지 등 시내 순례 후 초고속 열차 편으로 런던 출발, 파리 향발</p> <p>파리 도착</p> <p>호텔 투숙 및 석식</p> <p>예상호텔: RESIDHOME ROISSY PARK 혹은동급</p>	현지식 한 식 (도시 락)
제04일	파 리	전용 차량	전 일	<p>호텔 조식 후</p> <p>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 파리를 상징하는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콩코드 광장, 몽마르뜨</p>	호텔식 현지식 한 식

				<p>언덕,</p> <p>예수 성심 성당 등 순례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RESIDHOME</p> <p>ROISSY PARK 혹은 동급</p>	
--	--	--	--	---	--

제05일	파 리 베르사이유 파 리 제 네 바	전용 차량 T.G.V 전용 차량	전 일 15:11 18:17	<p>호텔 조식 후</p> <p>베르사이유로 이동 (약 1시간 소요)</p> <p>루이 14세이 권위를 상징하는 베르사이유 궁전,</p> <p>순례 후 파리로 귀환</p> <p>파리 출발, 제네바 향발</p> <p>제네바 도착</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HOLIDAY INN</p> <p>EXPRESS</p> <p>GENEVA AIRPORT</p> <p>혹은 동급</p>	호텔식 현지식 중국식
제06일	제 네 바	전용 차량	전 일	<p>호텔 조식 후</p> <p>바스티옹 공원의 종교 개혁 기념비,</p>	호텔식 현지식 현지식

	샤 모 니 취 리 히			<p>성 피에르 교회, 레만 호수, 종교 개혁자 칼뱅사택 등 순례 후</p> <p>샤모니로 이동 (약 1시간 소요)</p> <p>케이블카로 알프스 영봉 중 하나인 브뢰방 등정</p> <p>아름다운 파노라마 감상 후 취리히로 이동 (약 4시간 소요)</p> <p>개혁을 주도했던 그로스뮌스터, 취리히대학, 구시가지 및 취리히 호수 순례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HOLIDAY INN EXPRESS ZURICH AIRPORT 혹은 동급</p>	
제07일	취 리 히	전용 차량	전 일	<p>호텔 조식 후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약</p>	호텔식 현지식

	하이델베르크 보름스 프랑크푸르트			4시간 소요) 성령교회, 하이델베르크성, 칼 테오도르 다리, 철학자의 길 등 순례 후 보름스로 이동 (약 40분 소요) 마틴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았던 장소, 패터 대성당, 종교개혁 기념비 등 순례 후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예상호텔: LEONARDO ROYAL 혹은 동급	현지식
제08일	프랑크푸르트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아이제나흐로 이동 (약 3시간 소요) 바르트부르크 성, 성게오르그 교회, 카를광장, 루터하우스 등 순례 후	호텔식 현지식 중국식

				<p>에르푸르트로 이동 (약 1시간 소요)</p> <p>에르푸르트 대성당, 아우구스티너 수도원, 크뢰머 다리, 에르푸르트 대학 등 순례 후</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INTERCITY HOTEL 혹은 동급</p>	
제09일	<p>에르푸르트</p> <p>비텐베르크</p> <p>프 라 하</p>	<p>전용 차량</p>	전 일	<p>호텔 조식 후</p> <p>비텐베르크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p> <p>멜랑히톤하우스 외관, 성 마리아 교회,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비텐베르크 대학 등 순례 후</p> <p>프라하로 이동 (약 4시간 소요)</p> <p>석식 후 호텔 투숙</p> <p>예상호텔: BARCELO 혹은 동급</p>	<p>호텔식</p> <p>현지식</p> <p>한 식</p>

제10일	프 라 하 타 보 르 프 라 하	전용 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타보르로 이동 (약 1시간 20분 소요) 후스파의 성지로 불리우는 타로르 시내 및 타보르 박물관 순례 후 프라하로 귀환 카를 4세가 1406년 완성한 당대 최고 토목교 인 카를교, 천문시계, 틴성당, 현재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프라하 성 외관,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후스 동상 등 순례 후 석식 프라하 야경 감상 호텔 투숙 및 휴식 예상호텔: BARCELO 혹은 동급	호텔식 현지식 한 식
제11일	프 라 하	전용 차량	09: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호텔식 기내식

	뮌헨	LH1691	13:05	프라하 출발, 뮌헨 향발	기내식
			13:55	뮌헨 도착 후 연결편으로	
		LH 718	16:05	이동 뮌헨 출발, 인천 향발	
제12일	인천		09:35	인천 도착 공항 도착 후 해산	기내식

D. 메콩강 순례여행 (라오스, 태국 19박20일)

동남아 순례 여행을 통해 아시아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화와 종교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사유의 확장성과 개방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을 관통하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총 길이는 4.200km로 메콩강의 어원은 메남콩(Mae Nam Khong)강으로 이는 ‘모든 강의 어머니’란 뜻이다.²²⁸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젓줄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메콩강을 통해 생업과 교통, 상업 등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진다. 메콩강 영성 순례여행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을 시작하여 동남아의 계림이라고 하는 방비엔, 그리고 라오스의 옛 수도이며 유네스코 지정도시인 루앙프라방을 거쳐 태국 국경을 넘어가는데 루앙프라방에서 메콩강을

²²⁸ Ibid.,

거슬러 보트로 12시간 동안 태국 치앙쿱으로 이동하게 된다. 보트를 타고 가는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민족들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대자연을 통한 창조의 하나님의 흔적과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태국으로 넘어와 아름다운 풍경과 태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그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있음을 믿고 선교사적 지평을 넓혀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라오스와 태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도 방문하여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나누며 복음을 통한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타 종교에 대한 배척보다 그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꿈을 키워 나가는 시간이 되는 영성적 순례여행이 되어야 한다.

일자	장소	교통편	일정
1일	비엔티엔	비행기	입국
2일	비엔티엔	Van	빠뚜싸이, 나캄교회방문 라오스국립대학방문, 소금마을 방문

3일	비엔티엔	Van	라오스 선교사 사역지 방문
4일	비엔티엔/방비엔	Van	탓루앙, 왓시사켓, 라오스UMC 신학교
5일	방비엔	여행사 차량	엑티비티 (카약, 짚라인, 블루라군)
6일	방비엔/루앙프라 방	기차 or Van	일몰투어, 자유시간
7일	루앙프라방	Van	교회 방문 및 사역
8일	루앙프라방	Van	탓발관람, 팡시폭포, UXO 방문(라오스 불발탄 제거 NGO), 맛세 폭포
9일	루앙프라방/버개 오	슬로우 보트	메콩강 마을에서 숙박

10일	버깨오	슬로우 보트	자유시간
11일	버깨오	Van	드림학교 및 현지교회 사역
12일	버깨오/태국	Van/버스	골든 트라이앵글 방문, 태국 이동
13일	치앙쿱/치앙라이	Van	도이퐁궁전, 메파루양정원, 선교센터
14일	치앙마이	Van	도이수텡, 반강왓, 나이트바자
15일	치앙마이/방콕	Van/나이트 버스	와렁쿱(백색사원), 체디루양사원
16일	방콕	Van	기독교방송국, 방콕연합교회

17일	방콕	Van	수상가옥, 기차길 마을
18일	방콕/촌부리	Van	레인보우선교센터
19일	촌부리/파타야	Van	산호섬 투어, 파타야 교회
20일	파타야/인천	비행기	출국

VI. 결 론

A. 요약 및 평가

영성 순례의 길에서 영성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찾아보고 자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들의 삶에 참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찾아본다.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이 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안에서 인류의 대한 사랑과

구원을 실현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였다. 인간은 생존 본능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안정적이고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발전시켜왔다. 순례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이 실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웃의 만남은 나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나 여행을 통한 순례의 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남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순례여행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배우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주관하신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발견들로 인해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어려움, 고통, 외로움 등 부정적 삶의 부분들이 긍정적 부활의 소망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을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의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어졌기에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순례의 여행 중에 만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 종교성으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의 구원 활동으로 모든 인간을 향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세상 만물 어느 곳이든지 참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하나님의 신비의 발견이고 신앙적 체험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지표가 된다.

영성적 순례의 길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류의 역사와 문화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역이 펼쳐지는 장이기도 하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실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 영성적 순례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인간의 삶을 통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 궁극적인 실재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생의 긴 여행 여정의 긍정적인 답으로 제시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 기쁨과 행복을 찾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순례여행의 여정 속에서 자연을 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신비함에 우리 인간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 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창조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인간에게 침투되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사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찾고 삶의 변화를 가지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지혜의 결과물은 모든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증거이고 인간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욥기의 말씀은 자연의 증거를 통해 만물의 기원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사유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찾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과녁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 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움을 아느니라.²²⁹

그러므로 더욱 더 인간 자신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인류의 삶 속에 참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섭리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이다. 이러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앎으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며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성을 만드시고 이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²²⁹ 욥기 24-33

이성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인간에게 이성은 복음을 찾아가는 지혜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신적흔적을 창조세계에 계시되어 남겨졌다. 이러한 창조세계 흔적은 자연 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까지 남아있으며 흔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다. 순례여행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흔적을 찾아가는 여행이며 순례여행의 길 위에서 자연을 맞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발견하며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간은 이러한 앎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신학을 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은 동일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피조 된 세상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존재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존과 성품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며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 학문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보지 않았으며 비록 구원의 도구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는 훌륭한 가르침과 도덕적 가치가 들어있다고 고백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연결되며 구속신앙을 가질 때 창조신앙은 더욱 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 언제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야한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의 진리를 통해 세상적 진리로 비추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창조세계의 진리이며 참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기에 세상이 유지되고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빛과 진리들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로 비추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 안에 감추어진 실존의 신비를 영원한 빛에 의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응한다. 그러므로 자연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연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학교’ 라고 하였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순결한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B. 결론과 제언

현대 사회는 세계적으로 자연 기후 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난 피해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팬데믹 상황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접하여 치열한 생존과 가치성의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행을 통해 힐링과 즐거움 그리고 종교적, 철학적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한다. 여러 형태의 여행 중 순례여행이 최근 현대에 들어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직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여행을 즐기고 선호한다. 또한 순례여행의 장소로 종교성을 가지는 성지나 종교적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도 있지만 자신의 존재와 삶의 성찰을 하기 위한 장소나 다양한 문화적 체험하기 위한 장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시도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자는 자연과 문화를 대상으로 감각적, 지적, 관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행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영성적 순례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인간들의 사회, 역사, 문화, 종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셔 지금도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 삶의 영성 활동을 통해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여행을 추구한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로 인한 물질 만물주의, 포스트 모던 사회의 다양한 삶,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팬데믹 상황들이 인간의 삶을 긴장하게 하고 실존에 대한 외로움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인간은 외부적 기존의 문화나 사회적, 자연적 영향 보다는 내면의 인간 이해로 시작되는 끊임없는 질문의 과정을 통해 현실의 존재인 자아를 찾기를 위해 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여행하면서 대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삶 속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신학생이나 기독인들은 영성적 순례여행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람들과 관계, 영성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찾아내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성적 순례여행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며 순례여행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힘들고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영성적 순례여행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영성적 순례여행에 있어서 진정한 추구의 목적은 내면적 갈등과 고통에서 진실된 자아를 찾고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과정으로 자아 성찰을 통해 자기기만과 세속에 물 들은 속물의 가면을 벗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죄성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에게 던지는 반복적인 질문과 여행 속에서 찾아오는 외로움은 현대 사회에서 오는 풍요로움 속에서 찾아오는 혼란스러운 삶이며 순례의 길은 세속적 현실 속에서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 공간과 시간의 세속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회복함으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버리고 영혼까지 씻어내는 초월적 순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순례는 세상에 던져진 내가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세상을 직면하면서 진실성에 다가가는 혼자로서 고독한 여행이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깊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을 던지는 여행을 선택하기도 한다. 순례여행의 진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찾는 성지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고산지대, 파타고니아, 서호주, 우유니 소금사막과 같은 원시자연이나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도보 길, 미국 서부 Pacific Crest Trail 도보길과 같은 극한의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곳, 이집트의 신전,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폼페이와 페허, 중국 시안의 진 황릉과 병마용, 예루살렘의 황금사원 등과 같은 문명의 유적지를 찾는다. 영성적 순례 여정 안에서 아름답고 웅장한 대자연의 숭고함과 인종과 민족의 다양한 삶은 영적 성장의 경험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 여행에서는 어떠한 확정된 도덕성과 윤리성을 완성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자유 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한 실존적 나를 찾고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이 되는 것이다. 회복은 자기반성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성적 순례여행을 통해 아름다운 창조세계와 인간의 역사와 문화적 산물을 접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경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곳의 삶 속에 실재하시고 참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 순례의 길에 나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 역사적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례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나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행은 떠남과 돌아옴이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처럼 언제나 세상으로 떠난 우리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참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순종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에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²³⁰

²³⁰ 송정미 '순종'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 OST)
<https://youtu.be/CiLRyoGZInU>

부록

순례여행 영성질문지(출발 전, 마지막 날)

순례여행 영성 일기

나에게 주는 새 계명과 사명선언문

순례여행 영성질문지

출발 전

1. 자신의 이름과 생일은?
2. 자신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이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3. 자신이 성장하며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가훈은 무엇인가요?
4. 자신이 성장하며 다니던 교회는 어디이며 지금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5.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언제 인가요?

6.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7.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8.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9. 여행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것은 어떤 건가요?
10. 이번 여행에서 제일가고 싶은 곳은 어디이며 이유는?
11.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2. 대자연을 보며 인간이 작은 존재이며 유한함을 느끼며 무한한 대우주에 대해 경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인가요?
13.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4. 모든 인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실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15. 인간 역사와 문화 속에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16. 영성적 순례여행을 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7. 하나님은 나자신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18.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이며 이유는?
19.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본다면?
20. 영성적 순례여행을 시작하면서 나의 고백은?

마지막 날

1. 여행하면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2. 여행하면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3.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4.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5. 영성적 순례여행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났다면 언제, 어디서인가요?

6. 영성적 순례여행을 통해 나의 변화를 찾는다면 무엇인가요?

7. 영성적 순례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지금 나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8.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9.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5계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0. 이번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영성적 순례여행을 떠난다면 어느 곳으로 가고 싶나요?

영 성 일 기

년 월 일 요일

영성 순례여행 일차

- 오늘 여행 일정 :

- 오늘의 말씀 :

제목:

* 나의 영성 일기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journal entry. It occupies the central portion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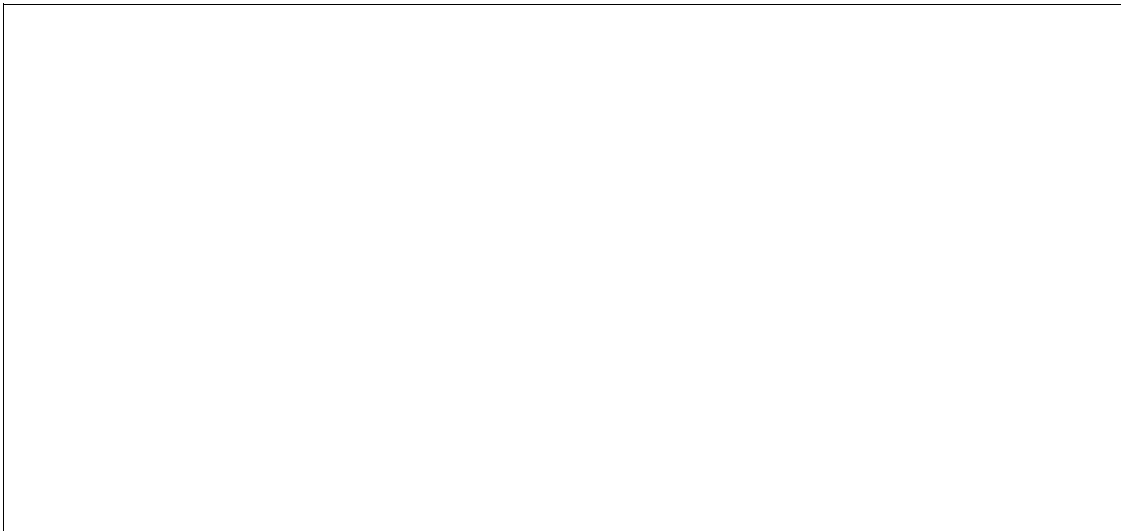
* 나의 성찰의 시간 (묵상)

나 에 게 주 시 는 새 계 명 과 사 명 선 언 문

* 나 에 게 주 시 는 새 계 명

- 1.
- 2.
- 3.
- 4.
- 5.

* 사명 선언문



참고문헌

참고 논문

- 권연경, “C. S. 루이스가 말하는 더 풍성한 의미,” *신약논단* 21(2014), 827-864
- 권영과, 이규성, “세계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스힐레백스 인간학의 현대적 함의-인간연구,” *인간연구* 43(2021), 159-188
- 권영과, 이규성, “스힐레백스의 ‘의명의 그리스도인’ 이해,” *신학전망*(2021), 80-114
- 권용근, “영성적 삶을 위한 영적지도와 훈련 방안,” *신학과 목회* 46(2016), 141-167
- 김영래, “순례와 기독교교육: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닮고, 따라 살면서,” *신학과 세계* 99(2020), 363-396
- 남기정, “영성, 영성학, 영성 신학: 영성의 정의, 윤곽, 접근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학과 세계* 99(2020), 321-361,
- 노은석, “기독교교육을 위한 영성,” *복음과 실천* 38(2006), 335-364
- 박창현, “하나님의 선교의 원형으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창12:1-9),” *신학과 세계* 53(2005), 222-246
- 박해경, “칼빈의 자연계시론,” *창조론오픈포럼*(2013), 41-52,
- 변찬복, “진정성추구여행의 종교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호텔경영학연구*(2018), 49-65
- 유해룡, “영성과 영성신학,” *장신논단* 36(2009):305.
- 유해룡, “한국적 상황에서의 영성의 연구동향,” *신학과 실천* 47(2015): 177-206.
- 이규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본 소명-그 해석학적 이해와 기독교 교육적 함의,” *교회와신학*(2014), 437-459
- 이규민, “중년, 인생의 가을: ‘깨어남’ 의 시간,” *교회교육*(2010), 14-20
- 이기락, “신앙생활과 성지순례,”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7(2006), 129-

151

- 이나시오 사나, 이영덕, “종교신학에 대한 칼라너의 기여,” *신학전망(2008)*, 118-147
- 이승연, “여행하는 인간과 기독교영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6(2016)*, 119-166
- 조덕영, “예수의 자연 계시,” *창조론오픈포럼 9(2015)*, 6-19
- 조덕영, “자연계시에 대한 두 관점, 어거스틴-칼바르트,” *창조론오픈포럼(2012)*, 6-18,
- 차정식, “예수의 여행과 교통 공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31-56.
- 최정훈, “기독교 영성의 본질과 이해,” *교육교회 316(2003)*,
- 최태영, “K.Barth의 자연신학,” *신학과 목회(1993)*, 83-108

참고 서적

- 강신덕, *성경여행* (서울: 도서출판토비아, 2017), 248.
- 권용선, *발터 벤야민의 공부법* (고양: 역사비평사, 2015), 264.
- 까를로 마짜, *순례영성*, 정인숙 역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5),
- 나용희, *영성과 경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성 버나드, *하나님의 사랑*, 심이석 역 (과주: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8), 314.
- 소요한, *한국 근대 교육의 개척자 아펜젤러* (경기 성남: 북코리아, 2016),
- 앤드루 라우스, *서양 신비사상의 기원*, 배성옥 역(서울: 분도출판사, 2002),
- 오성춘,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유동주, *지구 반대편에서 3650일* (서울: 나무와 숲, 2008), 271.
- 장 그르니에, *일상적인 삶*, 김용기 역 (서울: 민음사, 2001),

- 전광, *성경이 만든 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팀켈러, *팀 켈러의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5), 408,
-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6), 506.
- Ellul Jacques, *머리 둘 곳 없던 예수*, 황종대 역 (서울: 대장간, 2013)
- Henri J. M. Nouwen,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편집부 역 (서울: IVP, 2003),
- Henri J.M. Nouwen, *탕자의 귀향*, 최종훈 역 (서울: 포이에마, 2009),
- Jean-Pierre de Caussade, *자기포기*, 엄성옥 역 (서울: 은성, 2002),
- Jurgen Moltmann, *하나님 체험 (Gottes-erfahrungen)*, 전경연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2),
- Kenneth D. Boa, *기독교 영성, 그 열두 스펙트럼*, 송원준 역 (서울: 디모데, 2002),
- Lewis, C. S., *시편사색*, 이종태 역 (서울: 홍성사, 2001),
- Richard R. Osmer, *교육목회의 회복*, 박봉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R. Paul Stevens,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박영민 역 (서울: IVP, 1996)
- Tommy Tenney,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2),
- William James, *종교체험의 여러 모습들(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성민, 정지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 Chang, Kyoung Seog

Place and Date of Birth : Seoul. July 08. 1968

Parents' Names : Chang, Ki Tea / Lim, Young Ja

EDUCATIONAL INSTITUTIONS

	School (Name and Address)	Degree	Date
Secondary	Choongang High School 164 Changdukgyung-ro, Jongno-gu, Seoul	Diploma	Feb.13. 1987
Collegi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gribmun-ro, Seodaemun-gu, Seoul	B.th	Feb.13. 2018
Graduate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56 Dogribmun-ro, Seodaemun-gu, Seoul	Th.M	Feb.18. 2020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K.S. CHANG

Signature

Chang, Kyoung Seog

March 4, 2022